

2012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 저널 <ACT!> 포럼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프레임과 전략 수립을 위하여



- 일시: 2012년 5월 11일(금) 오후 3시
- 장소: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대강의실
- 주최: ACT! 편집위원회

2012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 저널 <ACT!> 포럼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프레임과 전략 수립을 위하여



- 일시: 2012년 5월 11일(금) 오후 3시
- 장소: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대강의실
- 주최: ACT! 편집위원회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 저널 <ACT!> 포럼]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프레임과 전략 수립을 위하여”

2012년 봄. 낡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미디어운동은 무엇인가요? 왜 필요한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 저널 <ACT!>는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3번에 걸쳐 미디어운동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미디어센터나 퍼블릭액세스, 미디어교육 등에 대한 학습의 시간이기도 했고, 지금 위치에서 지난 시기에 말을 걸어보는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심화, 확장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를 상상해보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ACT!> 포럼은 ‘주류 공공 독립’이라는 미디어운동 프레임에 대한 재고찰과 더불어 미디어운동의 목적과 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미디어운동의 10년을 준비해보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그리고 이 포럼이 미디어운동을 꿈꾸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연대를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단초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12년 5월 11일 금요일 오후 3시

○ **장소** 미디어액트 대강의실

○ **주최**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 저널 <ACT!> 편집위원회

○ **프로그램**

[사회] 최은정 (ACT! 편집위원회, 미디어액트)

[발제] 박민욱 (ACT! 편집위원회,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 사업팀)

[토론] 권용협 (평상필름 대표)

김명준 (미디어액트 소장)

이진행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미디어연구소 소장)

최성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사무국장)

□ 배경 및 취지

2012년 3월부터 두 달간,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 저널 <ACT!> 편집위원회는 미디어운동의 목적과 전략을 재고찰하고, 새로운 미디어운동 10년의 프레임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미디어운동 세미나를 6차시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미디어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최초의 프레임과 전략이 제시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그간의 급격한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운동의 프레임과 전략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미나에는 <ACT!> 편집위원들뿐만 아니라, 미디어운동에 관심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매차시마다 그 날의 주제와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미디어운동 활동가들이 게스트로 참석하여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6회의 세미나를 통해 참석자들은 미디어운동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고, 특히 다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1) 지난 10년간 미디어운동은 [주류미디어-공공영역-독립미디어]의 프레임을 그 기저에 깔고 비약할만한 발전을 해왔으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존 프레임이 향후 10년의 전략으로 여전히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

(2) 미디어센터로 미디어운동의 역량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센터로 집합되는 미디어운동의 역량을 어떻게 센터 밖으로 확산시킬 수 있을지, 그 전략에 대한 논의.

(3) 미디어운동이 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다층화되고 모호해져버린 미디어운동의 목적 및 전략과 관련하여 미디어운동 진영 내부의 대승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ACT!> 편집위원회는 이상의 주제들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더욱 확장, 심화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미디어운동 전체 프레임과 전략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는 진행된 바가 근래에 드물었던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목차

[발제]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프레임과 전략 수립을 위하여 박민욱 (ACT! 편집위원회,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 사업팀)	10
[참고자료] (영상) 미디어 운동의 전략 가다듬기 Ver. 0.9 : 주류 미디어, 공공 영역, 대안(독립)미디어의 상호 역학 김명준(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액트 소장)	32
[녹취록1] 발제 녹취	42
[녹취록2] 토론 녹취 (권용협 - 이진행 - 최성은 - 김명준 외)	51
[별첨] 2012 ACT! 미디어운동 세미나 기획안	73

[발제]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프레임과 전략수립을 위하여

박민욱 (ACT! 편집위원회,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 사업팀)

- 목 차 -

1. 진보적 미디어운동 저널 <ACT!>의 2012년 미디어운동 세미나
2. 한국의 미디어운동 초기 프레임을 살펴봄
 - (1) 미디어운동의 개념이 소개됨
 - (2) 공공영역이 출현함
 - (3) 미디어운동의 각 네트워크가 분화됨
3. 2012년 현재 미디어운동의 제문제
 - (1) 미디어센터는 미디어운동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가?
 - (2) 미디어교육의 정체성은 왜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가?
 - (3) 독립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가?
4.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프레임을 탐색함
 - (1) 공공영역의 의미와 역할을 재설정해봄
 - (2) 독립미디어의 의미와 역할을 재설정해봄
 - (3) 주류미디어와 독립미디어의 관계를 재설정해봄

1. 진보적 미디어운동 저널 <ACT!>의 2012년 미디어운동 세미나

진보적 미디어운동 저널 <ACT!> 편집위원회는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세 달간 제3차 미디어운동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1년에 진행한 제1, 2차 세미나가 미디어운동 전반에 대한 지식을 쌓고 그 간의 진행 상황들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였다면, 제3차 세미나는 미디어운동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린지 10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의 미디어운동의 흐름을 한번 점검해보고 더 나아가 새로운 미디어운동 10년을 상상해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살펴볼려 했던 주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미디어운동의 목적에 대한 재고찰
- ② 미디어운동 네트워킹이 분화되어 온 방식에 대한 포괄적 재검토
- ③ 기존 미디어운동의 프레임을 재편 혹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그 방식은 무엇일지에 대한 논의

상당히 광범위한, 겨우 몇 차례의 세미나로 커버하기에는 도무지 무모해보이기까지 한 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거의 신진활동가들로 구성된) 세미나 참여자들의 일정정도의 문제의식 속에서 출발한 것이며, 미디어운동 10주년이라 부를 수 있을 이 시기에, 다소 무모해보일지라도 한 번 정도는 우리의 활동을 큰 프레임 속에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난 10년간의 괄목할만한 성취를 부정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그 성과를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확대하여 새로운 미디어 운동 10년의 프레임을 구상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각 주제를 설정한 우리의 문제의식은 다음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① 10년 전에 비해 많은 상황변화들이 있었고 그에 따라 운동의 방법론 에도 상당한 변화들이 있었다. 이런 변화는 당연히 긍정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상정하였던 미디어 운동의 본질 및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목표의 근간은 변하지 말아야만 할 것이며, 빠른 변화의 속도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되새김질 해야만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내외적으로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생존을 최우선시 하다가, 혹은 기존의 방법론에 관성적이 되어 가다

가, 운동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② 미디어 운동 진영은 본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적으로는 퍼블릭 액세스, 공동체 라디오, 미디어 교육, 미디어센터, 공동체 상영, 대안 언론 등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로 각각 분화되어 발전해 왔으며, 초창기에 이렇게 세팅되었던 데에는 타당한 이유와 그럴만한 당시의 조건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각 네트워크는 대부분 그 활동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이고, 더 심각하게는 각 네트워크 사이에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이 되지 않아 활동의 성과가 각 네트워크 내부에만 축적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③ 현재 미디어 운동 네트워킹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디어 운동의 본래 목적을 보다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기존에 상정된 프레임을 재편 혹은 수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 2012년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국면 전환이 예상되는 시기이고, 서울시에서는 이미 새로 선출된 시장에 의해 풀뿌리 미디어 운동과 관련한 긍정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기존 활동가들과 신진 활동가들이 함께 기존 프레임에 대해 검토해보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건설적 제안을 고민해보는 것은 시기적절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우리는 처음 두 차시의 세미나에서 미디어운동의 목적과 실천 전략은 무엇인지, 미디어 운동 네트워킹의 현재 분화방식은 적절한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후 차시에서는 보다 각론으로 들어가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독립미디어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매차시마다 그 날의 주제와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미디어운동 활동가들이 게스트로 참석하여 큰 도움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애초의 우려(신진활동가들이 주축이 된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주제 등)에 비해서 상당히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각자의 깊은 고민의 흔적들이 많이 드러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포럼은 지난 세미나를 통해 드러난 우리의 문제의식과 고민의 결과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더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세미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술한 갑론을박이 있었던,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주제인,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프레임과 그 실천 전략에 대한 이야기에 집

중하려 합니다. 물론, 짧은 세미나 과정 속에서 이 거창한 주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더더구나 새로운 프레임을 도출해내는 데까지는 당연히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논의가 이번 포럼을 통해 더 확산되고 더 깊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단초로서, 본 발제문에서는 기존의 프레임을 간략히 살펴보고 시대와 여러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이의 문제점을 제시한 후, 새로운 프레임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2. 한국의 미디어운동 초기 프레임을 살펴봄

(1) 미디어운동의 개념이 소개됨

한국의 미디어운동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미디어운동이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개념과 경험이 국내에 소개됨으로 출발되었고, 이는 당시 한국의 암울한 미디어 관련 상황 속에서 충격 내지는 생소함으로 처음 다가왔습니다. 시민이 스스로 미디어를 이용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표현하고 널리 퍼뜨린다!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이와 같은 미디어운동의 개념은 이미 1970년대 초반, 북미에서 퍼블릭 액세스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됨과 동시에 실현)되었고, 80년대 초반에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정착, 제도적으로 실천되었습니다. 여기서 실현, 실천되었다는 의미는 단순히 시민들이 스스로 영상, 라디오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작하기 시작하였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콘텐츠들이 독자의 채널을 통해 방송되었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 외국의 사례에 비하면 20년 이상 늦게, 한국에서는 미디어운동의 개념이 겨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시청자운동, 독립영화, 언론 노조 등의 폭넓은 의미에서의 미디어운동 진영은 이미 존재해 왔지만, 시민이 스스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미디어를 이용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것은, 적어도 90년대까지의 한국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공상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는 것이었기에, 한국의 암울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는 더욱이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가 활발히 소개되고 미디어운동 진영(특히 독립영화계)의 끊임없는 요구와 일단의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미디어운동은 드디어 그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놓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디어운동이 한국에 소개되고 정착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일단 다음과 같은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① 한국의 미디어운동은 북미의 퍼블릭 액세스 운동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이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 주류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거나 독립적 언론, 예술 활동의 보장을 주장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미디어운동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런 주장들은 2000년대 이전부터 이미 존재해온 것이고, 우리가 흔히 미디어운동이라 지칭하는 것의 출발점에 퍼블릭 액세스 운동의 영향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물론 퍼블릭 액세스가 미디어운동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을 테지만, 적어도 이를 빼놓고 미디어운동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시민이 제작한 독립미디어의 확산은 초기부터 미디어운동의 핵심이었다.

② 초기 미디어운동, 특히 독립미디어의 확산은 정치·사회적 변혁운동의 중요한 부면으로서 인식된 측면이 있었다. 한국의 미디어운동을 초기에 활발히 이끈 김명준 미디어액트 소장은 2002년에 쓴 글에서 독립미디어(대안미디어)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체제를 변혁하고자 하는 운동과 미디어 /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는 원래 중요하다. 운동은 어떤 특정한 변화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고 그것은 소통과 설득과 교육과 결정의 과정이며, 미디어 / 커뮤니케이션은 변화와 연관된 사람들이 (소수의 선구자로부터 궁극적으로는 그 운동에 동참하거나 영향을 주고 받게 되는 다수의 대중에 이르기까지, 내부의 커뮤니케이션과 외부에 대한 설득을 모두 포함해서) 고안하고 실천하고 상호작용하는 모든 과정과 연관된다. 운동이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그 운동의 독자적인 무기로서 대안 미디어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2) 공공영역이 출현함

한국의 미디어운동은 2000년 통합방송법 개정으로 퍼블릭 액세스의 개념이 제도권의 논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단순히 북미와 유럽에서는 1970년대에 실현된 것이 한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야 가능했다는 것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90년대 이후의 세계사적인 흐름을 고려해 봤을 때 역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60,7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좌파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강했던 시절이었고, 그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민의 활발한 독립미디어 제작과 이를 확산시키는 독자적 커뮤니티 채널(시민 채널)의 출현이 비교적 쉽고 빠른 기간 안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우파와 시장자유주의 이데올로기(더 나아가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전 세계의 미디어운동 진영은 큰 타격을 입었고, 퍼블릭 액세스의 본고장인 북미에서조차 커뮤니티 채널의 입지는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한국에서는 오히려 퍼블릭 액세스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최초로 마련되었으니, 한편으로는 놀라운 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향후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통합방송법 개정으로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공중파에서의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보장되었고,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들이 다수의 채널에서 1주일 혹은 1달에 정해진 얼마의 시간씩(대개 1시간미만) 편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는 당시 한국의 상황으로서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북미와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70년대에 이미 독자적인 퍼블릭 액세스 채널을 확보하는 것으로 미디어운동이 제도권에 들어온 것에 비하면, 아쉬운 수준임에는 분명합니다. 이처럼 비록 독자적인 채널은 없는 상황이었지만,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을 위한 콘텐츠의 수요는 일단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시민들의 미디어 제작을 지원하는 미디어센터가 2002년 최초로 개관하게 됩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최초의 미디어센터인 미디어엑트를 설립하면서 미디어운동은 명실상부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미디어엑트의 김명준 소장은 '공공영역'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공적자금으로 설립되는 미디어센터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공공영역에서의 미디어운동은 "공공적 영역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전사회적인 공공적 서비스를 확대하며, 독립 미디어와 주류 미디어 양쪽의 진보적, 민주적 미디어 운동 역량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미디어센터를 주된 대상으로 상정하고 표현한 것이 분명한 이 공공영역은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보다 공식적인 체계의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공공'영역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주류

미디어와 독립미디어 양쪽 모두의 미디어운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사실상 공공 영역을 주류미디어와 독립미디어 사이에 위치시키고, [주류미디어 - 공공영역 - 독립미디어] 의 3대 영역으로 구성되는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고,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미디어운동 진영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지배적인 프레임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김명준 소장이 제시한 공공영역의 세부적 특성들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영역은 실험공간이자 지원공간이다. 주류미디어는 그 구조적 한계 때문에 절대로 시도하지 않을, 그리고 독립미디어는 물적 자원의 한계 때문에 시도할 수 없었던 다양한 정책과 실천을 공공영역에서는 할 수 있다. 또한, 공공영역은 독립미디어를 지원하는 보다 공식적인 체계로서, 공적자금을 사용하여 종전의 (비공식적인 방식의) 독립미디어 진영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규모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영역은 보편적 서비스를 기초로 하되, 현 체제의 사회적 불평등을 인정하고 그 관계의 변화를 의제로 삼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 영역은 진보적 사회 변화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현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 우선, 보편적 서비스와 선택적 서비스를 이상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조건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거나 이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란, 공공영역의 주체들이 고립되고 정보를 독점하며 독립미디어와의 긴밀한 연대를 상실하는 것을 뜻할 수 있다.

③ 공공영역은 항상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사회적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정 상황(이를 테면, 폭압적 체제의 경우, 독립미디어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거치며, 주류미디어를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그 영향력을 극복할 정도로 성장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공공영역은 옵션에 해당한다. 또한, 정치체제의 퇴행적 변화는 공공영역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다.

④ 공공영역은 순탄한 사회적 변혁만이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착각을 부산물로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는 (협소하게 정의된) 보편적 서비스는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하는 실천에 대한 지원에 상당한 자원을 소모할 수도 있다.

(3) 미디어운동의 각 네트워크가 분화됨

미디어센터로 대표되는 공공영역의 등장과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의 확보는 미디어운동 진영의 혁혁한 성과이며 미디어운동의 큰 진보였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것처럼, 대부분의 나라에서 미디어운동은 독립미디어를 전문으로 방송하는 독자적인 커뮤니티 채널을 확보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것을 운동의 주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커뮤니티 채널에 대한 체계적인 요구가 채 정립되기도 전에, 기존 채널 안에 약간의 시간을 분배받는 방식과 독립미디어를 지원하는 미디어센터 설립을 먼저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에는, 물론 한국의 특수한 상황들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방송과 전파를 둘러싼 한국 정부와 기업의 뿌리 깊은 보수적, 배타적 의식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미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휩쓸고 있던 당시의 세계 정황상, 북미와 유럽에서 과거에는 비교적 쉽게 쟁취할 수 있었던 독립미디어에 대한 권리가 세계적으로 이미 감소추세에 있었다는 것, 따라서 한국은 미디어운동의 세계적 흐름을 타기에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는 한국의 미디어운동을 초기에 주도한 세력은 시민이 스스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측면에 보다 경도되어 있었고, 독자적 커뮤니티 채널에 대해 체계적으로 요구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할 수 있을만한 미디어운동 진영 내부의 대승적 합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미디어액트와 비슷한 시기에 개국한 시민방송 RTV가 있었습니다. RTV는 물론 또 하나의 공공영역이었으며, 미디어센터와 시민방송이 서로 상호보완하며 두 중심축으로 미디어운동의 근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기회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와 동일한 요인으로 결국 미완의 실험으로 머물고 말았고, 이것은 당시에 도 아쉬운 일이었지만, 10년이 지난 오늘날의 상황(요원한 독자적 커뮤니티 채널 설립)에 비추어 보면, 더욱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글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독자적 커뮤니티 채널에 대

한 고민과 전망은 보다 철저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며, 이것은 그만큼 독립 미디어(시민미디어)의 발전과 확산에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디어운동 진영은 기왕에 성취한 권리(미디어센터 설립과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확보)를 보다 확장하고 이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미디어센터 설립을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전국 단위로 모여들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단지 미디어센터에만 집중하지 말고, 미디어운동 관련 논의들을 심층, 확장하자는 취지에서 각 주제별 네트워크들로 분화되게 되었고, 이에는 크게 공동체 상영, 미디어교육, 공동체 라디오, 퍼블릭 액세스, 인터넷 대안언론, 미디어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논의 주제들은 이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각 주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활동하던 주체들이 내부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화 방식은 물론 각각의 주제별로 흩어지기 위함이 아닌, 주제별로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각 네트워크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시너지를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분화방식은 큰 틀 안에서 현재까지도 유효하며, 미디어운동 진영의 또 하나의 프레임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 전반부에서 문제의식으로 제기한 것처럼 현재 각 네트워크는 대부분 그 활동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이고, 더 심각하게는 각 네트워크 사이에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이 되지 않아 활동의 성과가 각 네트워크 내부에만 축적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요인에 대한 고민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3. 2012년 현재 미디어운동의 제문제

(1) 미디어센터는 미디어운동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가?

RTV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현재 공공영역으로는 미디어센터만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디어센터는 주류 미디어와 독립미디어 양쪽에서의 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으며, 양적으로도 전국 각지의 주요 거점에 무려 30여개가 설립되어 각 지역의 미디어 커

미디어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등 놀랄만한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미디어센터의 그간의 양적, 질적 발전을 논하는 것만으로도 이 짧은 글에서는 벅찬 일이고, 또한 이는 무척 유쾌한 일이겠으나, 여기에서는 이 글의 성격상, 공공영역으로서의 미디어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다소간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첫째, 공공영역의 위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애초의 프레임 속에서 주류미디어, 공공영역, 독립미디어 내부에서는 각각의 운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류미디어에서의 운동은 “주류 미디어 내부에 정치적 긴장을 형성하고, 최대한 그 공간 내에서 진보적 의제를 확대시키는 것”이고, 독립미디어에서의 운동은 “대안적 체계 및 역량을 수립함으로써 주류 미디어의 정치적 변화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인 목소리, 내용과 형식, 그리고 콘텐츠 생산 주체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영역에서의 운동은 “전사회적인 공공적 서비스를 확대하며, 독립 미디어와 주류 미디어 양쪽의 진보적, 민주적 미디어 운동 역량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류미디어와 독립미디어에서의 운동은 그 자체의 변화와 내부적 역량 강화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는 반면, 공공영역에서의 운동은 주류미디어와 독립미디어에서의 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그 요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영역에서의 운동은 다른 두 영역에서의 운동과 그 위상을 달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독립미디어에서의 운동은 홀로 남더라도 미디어운동으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공공영역에서의 운동은 홀로 남아서는 사실상 그 존재 의미가 상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해야 할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류미디어 - 공공영역 - 독립미디어]의 프레임 속에서는 세 위가 나란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 영역에서의 운동이 마치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왔으며, 공공영역 자체의 발전, 확대만으로도 미디어운동이 성장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켜 온 측면이 있습니다. 즉, 미디어센터가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자체만으로는 미디어운동의 성장과 직접적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그런 것 같은 인상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공공영역의 지나친 비대화입니다. 물론 공공영역의 확대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공공영역 자체의 확대보다는 공공영역에서의 운동(주류미디어와 독립미디어에서의 운동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강화되고 확대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적한 착각의 효과로 인해 미디어운동 진영의 많은 역량이 공공영역의 확대에 투여되었고, 더구나 공적자금의 유입으로 (다른 두 영역

에서의 운동에 비해) 비교적 순조롭게 공공영역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측면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공공영역에서의 운동에는 “전사회적인 공공적 서비스 확대”도 포함되는데, 공적자금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서 그동안의 공공영역은 이런 부면에 더욱 집중해 온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영역은 놀랄 만한 성장을 해왔으나, 이것이 곧 미디어운동의 성장, 발전으로 이어져 왔는지, 공공영역이 주류미디어와 독립미디어에서의 운동을 지원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왔는지, 아니면 그저 공공적 서비스 기관의 역할에 만족해 온 것은 아닌지, 그리고 미디어운동 진영의 역량이 지나치게 공공영역으로 투여되어 온 것은 아닌지,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30여개인 미디어센터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확산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류미디어의 보수화, 독점화, 상업화가 더욱 심화되고 독립미디어의 확산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영역 자체만이 확대되고, 더구나 그 본질마저 훼손되고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이는 미디어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운동 진영의 역량이 낭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문제제기입니다.

셋째, 시대적 흐름과 여러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공공영역이 애초부터 가지고 있던 본질적 불안요소들이 점차 노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공공영역의 세부적 특성들을 살펴보면, 공공영역이 처음 제시되었을 당시에 이미 다음 네 가지의 불안요소가 제기된 바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① 공공영역의 주체들이 고립되고 정보를 독점하며 독립미디어와의 긴밀한 연대를 상실하는 것. ② 정치체제의 퇴행적 변화는 공공영역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도 있다. ③ 공공영역은 순탄한 사회적 변혁만이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착각을 부산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독립미디어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거치며, 주류미디어를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그 영향력을 극복할 정도로 성장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공공영역은 옵션에 해당한다.” 공공영역이 탄생한지 10년이 지난 지금, 위의 네 가지 불안요소는 안타깝게도 그대로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디어센터의 비대화는 일부 미디어센터의 ‘기관화’를 가져왔고, 이는 미디어센터와 지역 내 독립미디어 운동 진영과의 긴밀한 연대를 점차 희석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② 퇴행적 정부의 등장으로 미디어액트가 큰 어려움을 겪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심지어 공적자금 투여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기존의 '공공영역'이라는 단어는 이제 독립미디어센터가 된 미디어액을 더 이상 지칭할 수 없게 되었다.

③ 일부 미디어센터는 공공적 서비스를 주요 역할로 자임하고 있으며, 독립미디어의 확산을 통한 정치·사회적 변혁운동에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

④ 촛불 시위, '나는 꿈수다' 등으로 촉발된 대중적 독립미디어가 주류미디어의 영향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디어센터는 이에 대해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독립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변혁의 과정에서 그야말로 옵션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상의 문제점들이 전국의 모든 미디어센터에서 공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들은 분명히 상당히 많은 미디어센터들에서 현재 발견되고 있으며, 지금의 프레임이 이 상태로 고착화 된다면, 그래서 공공영역이 독립미디어를 지원하는 역할 이상의 독자적인 위상으로 점점 더 비대화되어 진다면, 이러한 경향들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2) 미디어교육의 정체성은 왜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가?

공공영역, 즉 미디어센터의 확대는 곧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면서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미디어교육은 주류미디어와 독립미디어에서의 운동을 지원하는 공공영역의 역할에 있어서 큰 부면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영역의 대부분을 미디어센터가 차지하고 있지만, 북미와 유럽에서는 이 영역을 독자적 커뮤니티 채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 커뮤니티 채널들도 시민이 스스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북미의 경우에는 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커뮤니티 채널을 포함하는 커뮤니티 미디어센터의 건립을 최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일반 시민 누구나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미디어교육이 필수적이며, 이에겐 당연히 장비 교육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대한 이해, 주

류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 미디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 변혁의 힘으로 응집시키는 방식 등에 대한 교육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재 미디어센터를 근거지로 하여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미디어교육은 그 정체성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에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미디어교육의 위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앞서 주류미디어와 독립미디어에서의 운동을 지원하는 것이 애초에 설정된 공공영역의 주된 목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그 지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핵심은 바로 미디어교육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시민이 주류미디어의 폭력적, 일방적인 사회의제 설정에 대한 부당함을 비판하고, 미디어를 통해 스스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어 이를 자신들의 무기로 온전히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디어교육은 어디까지나 주류미디어와 독립미디어에서의 운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디어교육이 공공영역의 주요 기능이라는 데서 오는 필연적 결론입니다.

하지만, 공공영역의 위상이 [주류미디어 - 공공영역 - 독립미디어]의 프레임 속에서 양쪽 영역과 동등한 지점으로 자리매김 되고 그 자체의 확대가 미디어운동의 성장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되자, 공공영역의 주요 기능인 미디어교육 역시도 그 자체의 확대가 미디어운동의 성장과 직결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즉, 미디어교육이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자체만으로는 미디어운동의 성장과 직접적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그런 것 같은 인상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미디어교육의 지나친 비대화입니다. 물론 미디어교육의 확대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미디어교육 자체의 확대보다는 미디어교육으로 인해 이것이 지원하는 주류미디어와 독립미디어에서의 운동이 보다 강화되고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적한 착각의 효과로 인해 미디어운동 진영의 많은 역량이 미디어교육의 확대에 투여되었고, 더구나 미디어교육이 미디어센터의 주 수입원이 되어 버린 현실적 조건으로 인해 이러한 측면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원활한 공적자금 유입을 위해 공공영역이 "전사회적인 공공적 서비스"를 확

대하는 부면에 점점 더 집중하면서 미디어교육 역시 독립미디어의 활성화를 지원하기보다는 미디어를 소비하고 향유하는 측면에서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공공적 서비스에 더욱 치중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무척 보람 있는 일이고 어쩌면 최종적으로는 독립미디어의 활성화와 상당히 맞닿아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지나친 미디어교육의 비대화는 이런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추구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교육 그 자체의 의미와 성과를 부각시키는 쪽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디어교육은 지난 10년간 놀랄만한 성장을 해왔고, 많은 미디어센터들이 차라리 미디어교육센터로 불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정도로 미디어교육은 공공영역의 핵심적 기능이자 심지어는 공공영역의 존재이유로까지 자리매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교육의 비대화는 결국 공공영역이 주류미디어와 독립미디어에서의 운동을 지원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오히려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디어교육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교육이 지나치게 비대화되고 이것이 독립미디어를 지원하는 역할로 수렴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교육은 교육 그 자체의 의미와 성과만 강조되는 순간, 반쪽짜리 교육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이것이 다른 교육이 아니라, '미디어'교육이기 때문이며 미디어운동의 일환으로서의 미디어교육은 반드시 실천과 행동을 그 결과로 가져와야만 온전한 임무 수행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대적 흐름과 여러 상황의 변화에 따라 미디어교육이 애초부터 가지고 있던 모호성이 점차 노출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애초에 미디어교육이 공공영역의 기능으로 탑재된 이유는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교육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부면(장비교육, 주류미디어 읽기, 미디어 이해하기, 퍼블릭 액세스 교육, 미디어를 통한 임파워먼트 교육 등)때문에 쉽게 오해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디어교육이 공공적 서비스로서의 교육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면서 더욱 그렇게 된 측면이 있고, 결정적으로 미디어 융합시대를 맞이하여 '미디어' 자체의 범위가 사회적으로 (약간 과장을 보태) 거의 무한대까지 확장되면서 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술, 음악, 무용, 사진, 문학 등은 기본이요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기기, 각종 놀이들, 심리 치료 등까지 미디어와 결합하여 이해되고 수용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미디어교육도 다른 영역과 결합한 여러 형태의 교육들이 시도되었는

데, 이에는 일면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테지만, 이로 인해 미디어교육은 더욱 모호한 것이 되었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디어교육의 형태가 지나치게 모호해지면, 그 본질과 목적마저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교육의 출현으로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독립미디어들이 발생, 진화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이는 현재의 열악한 독립미디어의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미디어교육 고유의 특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에서 미디어교육, 혹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교육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미디어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해 버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운동으로서의 미디어교육은 문화예술교육과는 상당히 다른 특질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은 반드시 극복돼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미디어교육은 현재 그 정체성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주류 미디어와 독립미디어에서의 운동을 지원해야 할 미디어교육이 공공적 서비스 개념으로서 교육 그 자체의 의미와 성과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양적으로는 지나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영역, 즉 미디어센터가 지닌 문제와 거의 일치하며 이것은 미디어교육이 미디어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부면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미디어 융합시대를 맞아 미디어교육은 그 고유의 특질마저 위협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디어교육의 확대와 활성화는 물론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이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디어교육의 미래는 마냥 밝지만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독립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위에서 미디어센터와 미디어교육이 현재 처해있는 문제점들을 [주류미디어 - 공공영역 - 독립미디어]의 프레임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잠시 시각을 돌려 미디어운동의 또 하나의 프레임인 주제별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전술한 것처럼 미디어운동 진영은 각각의 주제별 네트워크로 분화되어 발전해 왔으며, 이는 각각의 주제별로 흩어지기 위함이 아닌, 주제별로 내실을 기함과 동시

에 각 네트워크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시너지를 내기 위함이었습
니다.

지금은 보다 많은 네트워크들 (지역별 네트워크나 소수자 단위별 네트워크 등)이
형성되기도 하였으나, 애초에 형성된 6개의 네트워크를 일단 나열해보면 공동체 상
영, 미디어교육, 공동체 라디오, 퍼블릭 액세스, 인터넷 대안언론, 미디어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들 네트워크 프레임은 [주류미디어 - 공공영역 - 독립미디어] 의 프레임
과 결합해서 생각해보면, 공동체 라디오와 퍼블릭 액세스는 [독립미디어] 에 결부되
어 있고, 미디어센터와 미디어교육은 [공공영역] 에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
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센터의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기 때
문에, 미디어교육을 [공공영역] 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공동체 상영은 미디어센터
가 그 기능을 상당부분 담당하면서도 독립미디어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영역] 과 [독립미디어] 의 사이에 위치시킬 만하며, 인터넷 대안언론
은 그 범위가 너무 크기에, 개별 매체의 성격에 따라서 [독립미디어] 에 포함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앞의 논의에서 우리는 공공영역의 위상이, 다른 두 영역(주류미디어와 독립미디
어)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독립미디어는 미디어운동의 한 주체이되, 공
공영역은 운동의 주체가 아니라 그 주된 역할이 운동의 '지원'에 있으며, 결국 이
말은 미디어센터와 미디어교육은 공동체 라디오와 퍼블릭 액세스를 지원하는 것을
주 역할로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디어센터와 미디어교육 진영이 구성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각자의
내부 역량 강화에는 일정정도 성공했는지 모르나, 독립미디어 진영과 유기적인 관
계를 맺고 이를 지원하려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로서 독립미디어 진영을 지원하고 이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지 못한 편입니다.
한편, 독립미디어 진영 역시 공공영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구체적인 독립미디어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역시
내부적으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지 못한 편입니다.

각 네트워크의 내부적 역량 강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각
네트워크 간 유기적 협력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에는 미디어운동의 목적과 특히, 이
루려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대응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미디어운동이 애초
에 태동할 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이 점에 있어서는 비교적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각 미디어운동 진영마다, 심지어 개인마다도 다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므로 미디어운동의 목적도 바뀌어야 한다고, 혹은 미디어운동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상당수 모아진다면,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 시점에서 다시 체제를 정비하고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독립미디어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서로의 욕망이 혼재된 상태로서의 방안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전히 미디어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물론 10년 전과 같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적당한 시기도 필요합니다. 그 때를 우리가 만들어내면 좋겠지만, 그것이 요원하다 하더라도 외부적 상황 변화로 그 시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방안 혹은 요구를 명료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쉽게 이해되고 성공확률이 높은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각 미디어운동 진영이 자신의 지분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독립미디어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협의하고 방안이 정해지면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4.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프레임을 탐색함

(1) 공공영역의 의미와 역할을 재설정해봄

공공영역의 설정으로 미디어운동 진영이 획득한 것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미디어운동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했고, 독립미디어의 제작과 확산을 지원하였으며, 독립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논의, 제시하였고, 주류미디어에 긴장감을 주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혁혁한 성과로 말미암아 미디어운동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 땅에 드디어 미디어운동은 어느 정도 성공적인 안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의 정치적 변화가 있자, 공공영역의 순수성(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측면에서)은 크게 위협받았고, 아이러니하게도 양적으로는 계속 증가하였으나, 공공영역의 역기능 또한 이에 따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 경험을 통해 드

는 생각은 애초부터 공공영역의 설정이란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공공영역의 최대 성과는 미디어운동을 제도권 안에서 논의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공적자금을 유입하여 미디어운동을 지하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고, 끊임없는 요구와 압박으로 미디어운동에 관한 법적, 정책적, 제도적 변화를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일을 수행해야 하였기에, 초기 프레임에서 공공영역은 주류미디어와 독립미디어 사이에 위치하여 미디어운동의 주체가 아니면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만 했고, 허약하기 짝이 없는 독립미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 지대 역할을 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공공영역이 거둔 성과로 이제 판은 형성되었고, 그 다음 단계로 본격적인 독립미디어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길 모두가 기대하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다음으로 도무지 넘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단계로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미 상당수의 미디어센터들은 이미 공공적 서비스 기관의 성격으로 변모하였고 지나치게 제도화되어 독립미디어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미디어운동이 안착한지도 10년이 지났으니, 공공영역을 제자리로 위치시킬 때인 것 같습니다. 주류미디어와 독립미디어 사이에 애매하게 있지 말고, 순수하게 독립미디어를 지원하는 센터의 역할로 가는 것입니다. 이 독립미디어 지원센터는 앞서 지적인 기존의 미디어센터의 역기능을 보완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① 독립미디어 지원센터는 독립미디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안적 체계 및 역량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공적 서비스의 기능은 축소)

② 개별 센터의 규모는 줄이되, 대신 소규모 지역 단위까지 확산하여 양적으로는 증가한다. (중소형 미디어센터 지향)

③ 지역의 독립미디어 주체 및 시민과 긴밀한 연대를 유지한다. (지역 공동체 및 풀뿌리 운동과의 연대)

④ 공적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안적 운영방식을 개발한다. (협동조합과 같은)

⑤ 대중적 독립미디어의 중요성과 그 폭발력을 인정하고 이를 흡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대안적 채널의 확보)

(2) 독립미디어의 의미와 역할을 재설정해봄

'주류미디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콘텐츠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방송국이라는 물적 근거가 있는데 이곳에는 장비와 공간과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교육과 연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를 방송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류 미디어를 이야기할 때는 방송국, 콘텐츠, 채널을 한꺼번에 지칭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흔히 '독립미디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콘텐츠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독립미디어도 주류미디어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부면이 모두 필요하며, 우리가 독립미디어를 이야기할 때도 이 세 부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독립미디어에서 방송국 역할을 하는 것은 미디어센터일 것입니다. 현재의 미디어센터도 일정정도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독립미디어 지원센터가 현실화된다면 보다 분명히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는 장비와 공간과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미디어교육과 미디어운동 정책연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콘텐츠는 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은 시민이 스스로 제작하며, 물론 채널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채널은 텔레비전 채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며, 넓은 의미의 플랫폼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콘텐츠의 경우, 그 내용과 방식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기존의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을 위한 독립미디어 콘텐츠는 내용과 방식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기에 독립미디어 콘텐츠라고 하면 그 틀 안에서만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방식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독립미디어 콘텐츠들은 대개가 일인 제작 다큐멘터리(VJ물)였는데, 몇 십분 길이의 이러한 영상물을 일반 시민이 제작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은 많은 경우 콘텐츠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방송채택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퍼블릭 액세스에 방송채택료를 지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만약 해외의 사례대로 독자적 커뮤니티 TV 채널이 생긴다면 그 많은 시간을 무슨 수로 채울

것인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독립미디어의 콘텐츠와 채널과 관련해서는 무수히 많은 해결되지 않는 물음표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앞으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정도의 일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독자적 커뮤니티 채널이 생긴다고 가정해 보면, 그것도 서울의 한 구나 지역의 한 군 정도를 시청권역으로 하는 작은 동네 채널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채널에는 상근을 하는 직원이 한두 명 있고, 작고 조악한 스튜디오도 하나 있습니다. 혹은 인근의 독립미디어 지원센터의 스튜디오를 빌려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제작한 영상물을 가져오면 무조건 방송을 합니다. 동네의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관련자를 스튜디오에 불러다 놓고 토론을 시킵니다. 채널 직원이 다소간의 연출을 하지만, 이는 연출이라기보다는 현장진행 정도이고, 많은 경우 편집도 없이 그냥 방송됩니다. 지역에 행사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행사 스케치만 내보냅니다. 미디어센터에서 교육받은 시민이 촬영에 참여합니다. 누구나 할 말이 있으면 스튜디오를 찾아옵니다. 요리 잘하는 누구는 스튜디오에 와서 자신만의 레시피를 뽐냅니다. 아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오니, 몇몇 동네 주민은 관심 있어 합니다. 지역에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할인마트 직원과 재래시장 상인의 싸움, 아니 토론이 방송됩니다. 이와 관련 있는 동네 주민들은 텔레비전을 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눈이 많이 옵니다. 어디에서 불이 납니다. 동네 주민들은 길가다 우연히 찍어서 보낸 영상들을 채널로 보내고 이 영상들은 모여서 하나의 동네 뉴스가 됩니다.

위의 상상은 단지 상상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PEG 채널이나 독일의 오픈채널 중 많은 수가, 시민이 콘텐츠를 제작해서 가져오기만을 가만히 기다리기 보다는,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제작, 수급합니다. 이러한 동네 채널은, 물론 지역의 소소하고 시시한 이야기들로 채워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의 유대감은 깊어질 수 있고 사람들은 소통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공동체가 공동으로 직면한 어떤 사회적 과제가 있을 때, 이런 동네 채널은 시민의 의견을 한 데 모으고, 소통하고, 함께 행동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회적 의제를 다룬 퍼블릭 액세스들이 주도적으로 확산되어야만 독립미디어를 통한 사회 변혁의 운동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작은 규모의 독자적 커뮤니티 채널도 독립미디어 활성화의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으며, 이밖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독립미디어와 채널의 종류와 방식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외의 사례와 지금까지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최적화된 독립미디어의 활

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시 말하지만, 각 미디어운동 진영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깊은 논의를 하여 대승적 합의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주류미디어와 독립미디어의 관계를 재설정해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새로운 프레임에 대한 거친 그림을 그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디어센터로 대표되는 공공영역은 공공적 서비스 기능, 주류미디어 견제 기능, 독립미디어 지원 기능 등의 다양한 부면을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에는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적 서비스 기능에 치중하고 있다.

② 이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미디어센터보다 규모가 작고, 보다 지역과 밀착하여 지역의 독립미디어를 지원하는 형태의 독립미디어 지원센터를 건립한다.

③ 현재 공공영역의 주류미디어 견제 기능은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기능은 기존의 혹은 새로운 주류미디어 감시기구로 넘기되, 독립미디어 지원센터와 주류미디어 감시기구 사이에는 긴밀한 논의와 협의가 항상 있어야만 하며, 이 둘은 미디어운동 전체의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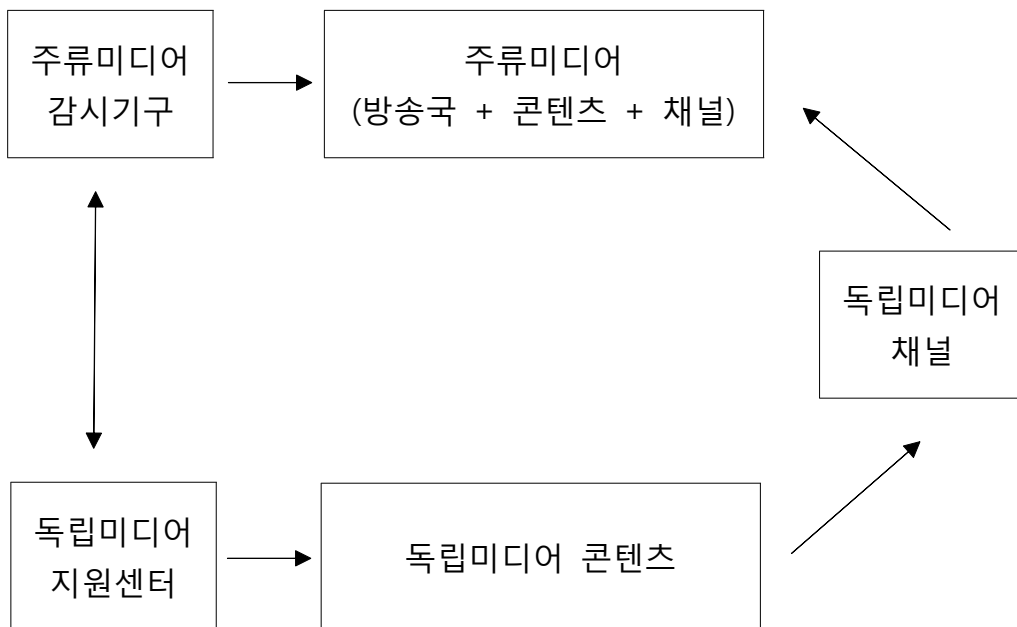
④ 기존의 미디어센터들은 공공적 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미디어문화센터나 미디어교육센터 등으로 변환하던지, 독립미디어 지원센터화(化) 하던지, 독립미디어 지원센터의 허브기능을 담당하던지 선택할 수 있다.

⑤ 시민은 독립미디어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직접 독립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독립미디어 채널을 통해 확산시킨다. 여기에는 시민이 개인적으로 작업하여 개인미디어를 통해 유포시키는 대중적 독립미디어도 포함된다.

⑥ 독립미디어 채널은 독자적 커뮤니티 TV채널에서부터 개인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확산되는 지역의 독립미디어

콘텐츠는 주류미디어에 영향을 주어 진보적 의제를 확대시킨다.

⑦ 독립미디어 지원센터와 독립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독립미디어 채널을 통칭하여 '독립미디어'로 지칭할 수 있으며, 주류미디어 역시 세부적으로는 방송국, 콘텐츠, 채널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프레임은 사실상 주류미디어와 독립미디어의 1:1 구조를 상징하고 있다. □



[참고자료]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제1호 2003.7.18

(영상) 미디어 운동의 전략 가다듬기 Ver. 0.9 - 주류 미디어, 공공 영역, 대안(독립) 미디어의 상호 역학

김명준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소장)

미디어 운동의 해묵은 과제 한 가지는 진보적인 미디어 운동의 전망과 전략에 대한 엄밀한 이론적 검토이다. 현실의 변혁과 끈끈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뒤늦은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전망하며 어떤 선택이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그래서 치열하게 끝없이 싸우고 구상하고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풍부한 사고의 근거와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그런 이론을 만드는 실천 말이다. 그 실마리를 푸는 하나의 계기로, 미디어 운동의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상호침투하는 영역들에 대한 가설을 세워보려는 것이 이 글의 의도이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급하게 쓰여진 이 메모의 한계들은 뚜렷하다. 아직까지는 전체 그림 자체가 취약하기에, 불가피하게 시청각 매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풀어가면서 거꾸로 커뮤니케이션과 사회변화의 문제를 탐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보사회, 진보(적) 등의 기본 개념 자체가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 말이다. 이렇게 운동의 대상과 공간이 되는 개념에 대한 해명 없이 영역을 탐구하고 전략을 고민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어설프기 짝이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역동적인 계급관계에 의해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현실에 대한 고려를 풍부하게 반영하는 이론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개념을 놓고 머리를 싸매는 것은 결국 그 개념을 모호하거나 아무 실천적 가치가 없거나 아니면 주류 학계의 논리-현 체제와 공생관계인-에 근거한 것으로 전략시킨다는 점에서, 이런 한계를 안고 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어느 단계에선가 그 규명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그 과정의 하나로서 미

디어 운동의 3대 영역을 다루어본다. 보편적인 원칙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면서도 당대의 현실이라는 자양분을 놓치지 않는 긴장을 유지하면서, 비록 상당수의 얘기는 가설적이고, 개념은 불확실하지만, 가까운 언젠가 제대로 가다듬어야 할 미디어 운동의 전략 구상을 위한 토론 근거를 한번 만들어보기로 하자.

1. 변화와 진보의 동력을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계기로 어떻게 질문해야하나?

어쩌면 지금처럼 우리에게 많은 질문이 필요한 시기도 없을지 모르겠다. 촛불시위의 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운동 영역의 등장, 한국 사회 전반의 거대한 정치적 변화, 전지구적 운동의 본격적인 출현 등 미디어와 사회와 운동을 둘러싼 최근의 사회적 변화는 80년대와는 다른 의미에서 정말 급격하다.

그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미디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주목할 지점중 하나는 이른바 공공 영역의 등장이다. 대안적인 미디어 운동의 성장을 바탕으로 하고 한국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를 매개로 삼아, 그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분간 그 실현이 불가능해보였던 과제들이 조금씩 우리 앞에 물질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통합방송법 통과와 함께 퍼블릭 액세스의 개념이 방송에 도입되었고, 영화진흥위원회의 변화를 계기로 3년여의 준비 끝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설립되었으며, 공공기구나 정부부처의 지원제도가 가시화되었고, 비판적 미디어 교육을 학교 공간내의 공식적인 교육 체계로 도입하는 것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등, 최근 3년간의 변화는 80년대에는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것들이다.

사실, 그동안 진보적인 미디어 운동에 있어서 법과 제도의 영역은 고려하거나 심지어 존중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거나 아니면 독립적인 미디어 운동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사회 전반의 민주화가 여타 사회운동에 있어서는, 법, 제도에 의해 뒷받침되는 이른바 공공적 영역을 둘러싼 논쟁과 투쟁을 곧바로 불러일으킨 반면에, 미디어의 영역은 비록 방송 및 영화 관련법의 개정운동이 있기는 했지만 공공적 영역의 유지 혹은 확보라는 의식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못했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3년간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미디어의 (비록 모호한 개념이지만) 공공 영역은 매우 구체적인 실체로서 우리 앞에 빠른 속도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고무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기를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우선, 시청자 운동, 독립영화, 언론노조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미디어 운동 진영은 이런 문제에 대한 총체적 시각을 아직 정리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많은 질문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질문되지 않거나 혹은 질문되더라

도 조직적 토론과 이론적 공론화가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논리적 추론의 부재와 논쟁과 토론의 실종은 결국 공공 영역에 대한 방기, 그리고 각각의 영역들간의 유기적 관계가 확보되지 못하는데 따른 고립과 실패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의 참담한 실패는 또한, 미디어 영역의 전략 혹은 강령을 방어적이고 수세적이거나 아니면 제한적인 내용 속으로 (독점 반대, 좁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 등) 가뒤편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는 방법 한 가지는 이런 새로운 공공 영역 그 자체를 고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운동 영역을 포괄해서 전체 미디어 운동의 지형을 다시 해명해내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영역 또한 재해석하며 서로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의 총합을 과거와 미래를 잇는 과도기적 현재로서 파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디어 운동의 발전의 한 지표인 공공 영역의 출현을 계기로 삼아 (공공 영역이 중심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략을 보다 심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대안적, 독립적 실천 영역의 의미는 무엇이고 발전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의 변혁은 대안적 운동의 고립적 발전으로 가능한가 혹은 그것과 등치되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이른바 주류의 영역은 어떤 한계와 어떤 의의를 지니고 어떤 전술이 필요한 영역인가? 공공 영역의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그것은 보편적 서비스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을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가? 현재 미디어 운동의 역량 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초점 영역들은 무엇인가? 종합하자면, 현실에서 축적되어온 것으로부터, 당면한 현실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힘을 집중하며 미래를 준비해가야 하는가?

2. 미디어 운동의 강화는 한국에서, 그리고 전 지구적 수준에서 세 가지 영역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다.

(모든 국가가 3영역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거나, 한국만이 3영역을 함축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는 전 지구적 운동의 범위에서 볼 때 그렇다는 말이다.)

파쇼체제가 아니라면, 말하자면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 형식이 어느 정도 갖춰지는 나라의 경우, 독립적 미디어를 지하로 몰아넣지는 않으며 그렇다고해서 국가 권력과 자본의 우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 그래서 다양한 미디어의 영역이 공존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벌어진다. 말하자면, 독립미디어의 경험에 근거해서 공적 영

역이 확대되고, 주류 미디어가 일정한 변화를 일으키며, 자본 또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가의 공적 개입에 대항하는 복합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경우, 미디어 운동의 전략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운동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 해야만 해명될 수 있다.

A. 대안적 체계 및 역량을 수립함으로써 주류 미디어의 정치적 변화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인 목소리, 내용과 형식, 그리고 콘텐츠 생산 주체를 가지는 것.

B. 주류 미디어 내부에 정치적 긴장을 형성하고, 최대한 그 공간 내에서 진보적 의제를 확대시키는 것.

C. 공공적 영역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 전사회적인 공공적 서비스를 확대하며, 독립 미디어와 주류 미디어 양쪽의 진보적, 민주적 미디어 운동 역량을 지원하는 것.

(1)

A에서 언급된 운동과 연관된 명칭은 말할 수 없이 다양하다. 대안 미디어, 독립 미디어, 저항 미디어, 대항 미디어, 급진적 미디어, 혁명적 미디어 등 혼란스러운 명칭 혹은 개념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영역이 현재의 체제와 때로는 적대적인 긴장관계를 지니고 있기에 불가피하다. 체제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며 성장하고 확립된 주류 체제와는 달리 지극히 가변적이고 내부의 다양성 또한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명칭 혹은 개념에 대한 정의는 차차 하기로 하고, 이 영역의 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이 운동을 대안 미디어 운동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1) 대안 미디어는 중요하다.

체제를 변혁하고자 하는 운동과 미디어 /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는 원래 중요하다. 운동은 어떤 특정한 변화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고 그것은 소통과 설득과 교육과 결정의 과정이며, 미디어 / 커뮤니케이션은 변화와 연관된 사람들이 (소수의 선구자로부터 궁극적으로는 그 운동에 동참하거나 영향을 주고 받게 되는 다수의 대중에 이르기까지, 내부의 커뮤니케이션과 외부에 대한 설득을 모두 포함해서) 고안하고 실천하고 상호작용하는 모든 과정과 연관된다. 운동이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그 운동의 독자적인 무기로서 대안 미디어는 중요

할 수밖에 없다.

2) 대안 미디어는 현 시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그것은 첫째로는, (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운동의 주체나 세력이 흔히 이렇게 분류되게 마련인, 혹은 고유한 이슈 자체가 절대적으로 소수자일 수밖에 없는) 비주류의 목소리가 정치적 위상을 점점 높이고 확장되고 있는 상황,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 미디어가 주요하고 필수불가결한 무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 자체로 자본주의의 확대재생산, 자본의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확산 과정에서 그것을 추동하고 그것의 결과이기도 한 '기술'의 발전은 대안 미디어에게 매우 새로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하자면, 현재의 체제가 자신에게 사망선고를 할 주체를 확대재생산하고 훈련시키는 것처럼, 미디어의 양면성은 대안 미디어의 중요성을 강화한다.

3) 물질적 독자성과 이념적 독자성을 모두 포함한다.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가가 중요하며, 독립적 메시지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독자성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며, 진보적 사회운동과 연대함과 동시에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대안 미디어는 정치적 관점과 미디어 지형을 파악하는 관점에 있어서 철저하게, 물적인 재생산 구조에 있어서 상당부분, 그리고 때로는 특정한 부문운동 및 조직과의 관계에 있어서 집요하게, 독립적이어야 한다.

4) 독립적, 대안적인 미디어 운동이 없다면 다른 두가지 영역의 운동도 불가능하다.

대안 미디어가 취약하다는 것은, 미디어에 대한 전문적 경험에 기초해서 공공적 영역을 확보하고 그것을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이끌 전략과 주체가 취약하다는 것이며, 주류 미디어의 한계를 폭로하고 주류 미디어가 결코 시도할 수 없는 혹은 주류 미디어가 감당하기 힘든 실험을 거치지 않고는 시도할 수 없는 활동을 통해서 주류 미디어의 한계를 인식하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돌파하게 하는 역동적인 발전과정의 계기가 상실되는 것을 뜻한다. 역학이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5) 남는 질문중 반드시 현재 수준에서라도 답변해야 할 것

주류 미디어가 아닌 미디어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반드시 현재의 체

제에 대한 의식적 극복을 목표로 삼는 것도 아니다. 그러한 미디어는 어떻게 정의 될 수 있으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다른 대안 미디어 및 주류 미디어와 공공 영역과 각각 어떤 관계를 맺는가?

(2)

B에서 지목한 주류 미디어는 공영적 미디어, 상업적 미디어로 구분되지만 그 내부 분포와 특징은 국가에 따라 그리고 영화,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기술적 성격에 따라 다르다. 이 영역의 운동은 한편으로는 내부의 미디어 노동자의 자기 이해에 기초한 운동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쟁의 조직화로 표현되며,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1) 제한적이지만, 변화는 가능하며 필요하다.

힘 있는 미디어인 만큼 비판적 정보 유통에 대한 제약과 보수적인 의제의 압도적 우위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사회 전반의 급진화에 따른 특정 주류 미디어 내용의 일시적인 정치적 전진이나, 혹은 전체를 규정하지는 않는 부분적인 진보는 가능하면서도 의미 있는 변화이다. 그것의 대중적 영향력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 영역의 진보적 변화는 제한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이다.

2) 대안미디어와 전반적으로는 대립하지만, 부분적으로는 협력하거나 공간을 제공한다.

대안 미디어의 입장에서 주류 미디어는 공공 영역과 같은 새로운 공간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만드는 대상이 아니라 있는 공간의 구조와 의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협력 대상이다. 그러나, 접근권의 확대 및 독과점의 해소를 계기로 하는 대안미디어의 진출은 부분적으로 가능하며 진보적 (미디어) 운동의 담론에 시민권을 부여하고 아울러 대안미디어의 물적 재생산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3) 내부로부터의 변화 동력은 주요한 근거이면서도 제한적이다.

미디어 노동자의 일반적 조건이 낳는 내부의 정치적 한계를 고려한다면, 대중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주류 매체의 민주적 변화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개입은 언제나 내외의 연대를 필요로 한다. 특히, 대안 미디어가 없다면 주류 내부의 고민은 심화되기 힘들며 긴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4) 남는 질문중 반드시 현재 수준에서라도 답변해야 할 것

매우 개인적인 공간에서 소비되는 대중 매체일 수밖에 없는 주류 미디어는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수용자와의 긴밀한 관계 맺기의 방식에 있어서도 대안 미디어를 대체할 수 없다. 그러나, 매우 보편적인 사회적 의제는 대중 매체의 형식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공유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적어도 현재의 인식 수준에서는. 그렇다면 주류 미디어의 지양된 형태는 도대체 무엇인가?

(3)

C는 현재 흔히 공공적 영역으로 표현되고 있는 공간과 연관된 운동이다. 이것은 상업적 혹은 관료적인 미디어 환경을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구조로 변화시키거나 혹은 (주로) 건설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경우 이것은 새로운 영역의 의미를 지니며, 대안 미디어가 주도적으로 개척해온 영역이기도 하다.

1) 실험 공간이자 지원 공간이다.

공공영역의 창출은, 대안 미디어 입장에서는 물적 자원이 부족해서 할 수 없었던, 주류 미디어 입장에서는 구조적 한계로 결코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정책과 실천을 실험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며, 아울러 진보적 미디어를 지원하는 보다 공식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지원의 규모와 방식은 주류 미디어와 비교했을 때는 협소하지만, 대안 미디어의 현실을 고려하면 획기적일 수도 있다.

2) 제한적이지만, 보편적 서비스를 기초로 하되 선택적 지원으로 확대 가능하다.

공공성은 언제나 보편적인 대상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성의 개념은 변화하며, 그것은 때로 소수자의 개념, 현 체제의 불가피한 사회적 불평등을 인정하며 그 관계의 변화를 의제로 삼기도 한다. 공공 영역은 보편적 서비스라는 (그 자체로도 진보인) 형식적 민주주의에 기반하면서도, 진보적 사회변화를 목표로 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상에 대한 사업을 동시에 포함할 수 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세상이 바뀌기 전에 소외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연관되면서도 독자적인 두 개의 대상이 그것이다.

3) 전지구적, 초역사적으로 보편적인 영역은 아니다.

폭압적 체제인 경우 대안 미디어, 독립 미디어는 때로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마주할 때 주류 미디어를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그 영향력을 극복할 정도로 성장하기도 한다. 그런 역사적 맥락에서 공공적 미디어는 옵션에 해당한다. 이와는 다른 상황에서, 정치체제의 퇴행적인 변화는 확보된 공공 영역으로부터의 퇴각을 낳을 수도 있다.

4) 보수적인 부산물이 존재한다.

운동의 발전에 따라 창출된 공공적 미디어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순탄한 사회적 변혁만이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착각을 부산물로 제공한다. 아울러, 사회적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는 (협소하게 정의된) 보편적 서비스는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하는 실천에 대한 지원에 상당한 자원을 소모할 수도 있다.

5) 질문

공공 영역이 보편적 서비스와 선택적 서비스를 결합시키기 위해 확보해야 할 조건들은 무엇인가? 그것이 제대로 결합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은 무엇인가? 덧붙여, 그러한 조건의 확보 및 판단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 말하자면 공공 영역의 주체들이 흔히 고립되고 정보를 독점하며 대안 미디어와의 긴밀한 연대를 상실하게 되는 경향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나?

3. 고립 혹은 연대

미래 사회의 미디어의 그림은 이 세 가지 영역의 긴장과 연대, 그리고 유기적인 통일 속에서만, 급진적인 정치사회적 변화를 매개로 구체화될 것이다. 문제는, 그 실천의 발전과정을 어떻게 이론적 연구와 맞게 하고 토론을 활성화함으로써 운동 전체를 살찌울까하는 것이다. 비록 여전히 진보적 담론은 변화의 동력 속에서도 소수이고 열세이지만, 조중동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세상은 변했고 운동은 성장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의 결과로서 착취와 불평등은 극심해지며 전쟁의 위협은 코앞에 다가왔다. 그런 점에서 실천과 이론의 소통, 그를 위한 이론적 축적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다.

물론, 해묵은 과제와 새로운 과제가 뒤섞인 상황을 헤쳐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

다. 공공 영역은 이제 막 기지개를 펴고 있을 뿐이고, 대안 미디어는 독립적인 이념과 구조를 발전시켜야 함과 동시에 공공 영역과 연대하고 주류 미디어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하는 3중의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과제를 안겨준다.

하지만, 발전된 기술, 매우 역동적인 사회운동, 그리고 짧지만 소중한 경험의 축적 등 한국의 미디어 운동은 - 민족주의적 관점에 제한되지 않는 - 매우 특수한 조건에 처해있으며, 그것은 흥미로운 실험의 과정이면서, 다른 나라의 미디어 운동에 대해 소중한 자산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이 동반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메모가 토론을 매개로 새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다시 갱신됨으로서 그 복합적인 과정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012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 저널 <ACT!> 포럼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프레임과
전략 수립을 위하여**

- 녹 취 록 -



[녹취1 - 발제]

2012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 저널 <ACT!> 포럼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프레임과 전략 수립을 위하여

○ 최은정(ACT!편집위원회, 미디어엑트)

지난 5월 9일 미디어엑트가 10주년을 맞았다. 함께 축하하면 좋겠다. 포럼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다. 2003년 첫 발을 댄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 저널 <ACT!>를 발행하고 있는 편집위원들과 함께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세 번의 세미나를 진행했다. 올해 초 지난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발전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포럼을 기획하게 됐다.

○ 박민욱(ACT!편집위원회,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 사업팀)

많이 떨린다.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프레임과 전략 수립'이라는 제목이 나온 이유는 지난해 미디어운동 전반을 훑는 세미나를 진행했고 올해는 그것을 좀 더 우리 시각으로 비판적으로 보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7페이지부터는 미디어운동 세미나의 배경과 문제의식을 적었다. 지난 10년 동안 미디어운동이 많은 성과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진 활동가들이 활동하면서 느꼈던 문제들을 적은 것이다. 그것이 12페이지 3번까지의 내용이다.

첫 번째는 미디어운동의 원래 목적에 대해 살펴봤고 주로 초기의 글들을 읽었다. 그리고 거기에 비춰봤을 때 현재 미디어운동이 그런 목적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져봤다. 두 번째는 현재 많은 네트워크로 분화가 되어있는데 초기에 크게 6개 네트워크가 있었지만, 최근 더 많은 네트워크가 분화되어가면서 미디어운동이 계속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는 오늘의 주제인데,

참고자료로 있는 글이 김명준 미디어소장님이 쓰셨던 글이 처음 미디어엑트가 설립되었던 근거를 제시한 글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그 10년간 미디어운동이 미디어센터를 빼고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설립근거와 역할을 그 글에서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미디어운동의 최초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문제를 제기해본 것이다.

발제문의 구성은 첫째, 초기에 한국 미디어운동의 초창기에 세워졌던 프레임을 살펴봤다. 이 프레임이 10년간 계속 진행되었다고 봤고, 이 때문에 초기에 세워진 프레임을 살펴보고 10년 후인 현재, 사회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문제점들을 생각해봤다. 두 번째는 현재 미디어운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정리했다. 세 번째, 그것들에 근거해서 새로운 프레임을 상상해보는 수준으로 정리해봤다. 이렇게 발제문은 세 파트로 구성되었다.

먼저 초기 미디어운동의 프레임을 살펴볼 수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이런 활동이 있었다고 봤을 때 그런 미디어운동이 자생적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것은 아닌 것이고 외국의 여러 사례들과 경험들을 참고하여 미디어운동이 한국화 되어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조사해보니 이미 70년대에 북미에서 '퍼블릭엑세스'라고 불리는 미디어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혁신적인 것은 그 운동이 미디어센터를 설립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일단 채널을 확보를 한 상태였다는 점이다.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로 존재한다고 본다.

14페이지로 넘어가겠다. 2000년 초반 미디어운동이 한국에 정착할 때 두 가지 측면을 일단 짚고 넘어가려 한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북미 퍼블릭엑세스의 강한 영향을 받은 것은 자명하다는 것이다. 미디어운동이 여러 방식으로 변화되어서 혹은 목적의식까지 약간 모호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본다. 애초에 미디어운동은 퍼블릭엑세스 즉 시민미디어가 시민들이 미디어를 스스로 제작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그런 것을 모토로 한다. 거기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서 시작한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미디어운동이 지금과는 달리 어쨌든 사회적인 변혁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수단, 무기 이런 식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아까 제가 말한대로 뒤에 붙어있는 김명준 소장님의 글에서 인용한 것이다. 대안미디어, 독립미디어가 체제를 변화시키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는 글이다. 미디어운동에 대한 미래가 이 당시에는 존재했던 것으로 이 글을 읽으며 느꼈다.

초창기 미디어운동이 소개되고 전개되는 과정을 15페이지에 적어봤다. 여기서 주

목해봤던 것은 어쨌든 이 통합방송법 개정이 2000년에 이루어지면서 퍼블릭엑세스 개념이 제도권 논의 영역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됐다. 시기적으로 북미의 유럽에 비해 20년 이상 늦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60년대 70년대는 사회적 좌파와 시민사회 목소리가 강했던 때였기 때문에 북미에서 가능했던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90년대 이후로 우파와 신자유주의까지 오면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시민미디어의 힘이 많이 떨어져가고 있었고 북미에서는 퍼블릭엑세스에 관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오히려 한국에서는 시민미디어와 독립미디어를 활성화하는 이런 것들이 2000년대 들어와 오히려 시작되었다는 것이 특이한 점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가시밭길이 예고되었던 것이라고 적어봤다. 그리고 또 초반부에 언급했던 것대로 북미, 유럽에서는 이미 채널을 확보한 상태에서 미디어운동을 더 확대하는 과정이었다면 한국에서의 미디어운동은 채널 확보에는 실패하고 미디어센터와 퍼블릭엑세스 프로그램들을 각 채널에 일주일에 한 시간, 한 달에 한 시간 정도 확보하는 수준에. RTV는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초창기에 센터 자체가 북미와 유럽과는 달랐다는 것을 지적해봤다. 세미나 때 김명준 소장님이 미디어센터가 시작되었을 때 당시의 경험들을 말씀 해주셨고 처음 미디어센터 설립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 그것들을 바로 아까 말한 그 글에서 공공영역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설명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공영역이라는 개념이 제 발제 주제와 같기에 더 자세히 말하겠다. 16페이지를 보면 공공영역은 주류 미디어와 독립미디어와 그 사이에 주류미디어에서의 미디어운동과 독립 미디어운동에서의 미디어운동을 지원하는 역할로서의 공공영역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그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주류미디어 공공영역 독립미디어라는 나란히 있는 그 그림들을 연상할 수 있다. 글에서도 그런 식으로 묘사되어있고 그래서 공공영역이 그 특징들을 위해서 4가지를 보면 된다.

17페이지로 넘어가면 미디어운동의 현재 네트워크의 분화되는 과정에 대해 적어봤다. 여기 처음에 그 제가 적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자적인 커뮤니티 채널이 확보 되지 못한 과정을 적어 봤다. 그 과정에서 RTV가 물론 존재했지만 김명준 소장님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RTV의 어떤 원활한 진행이 없었음을 많이 말씀 하셨다. 저는 커뮤니티 채널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RTV에 대한 안타까움에 공감한다.

18페이지는 아까 말한 미디어운동 진영이 즉, 미디어센터가 설립되어지고 퍼블릭 엑세스가 확보하는 이 상황을 좀 더 확장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진행하게 되는

데, 그 과정에서 각각 처음의 미디어센터를 설립하는 운동이 벌어졌고 거기서 많은 단위들이 모여서 각각 분화했다. 새롭게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운동진영들이 각각의 네트워크로 분화되었고 각각 내실을 기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한 채 그런 취지에서 분화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 초창기 미디어운동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했는데, 약간 요약을 하면 북미, 유럽에서의 퍼블릭액세스가 모티브로 되어 한국의 미디어운동이 소개되었고 정착했다. 그 과정에서 채널 확보가 원활하지 못했고 미디어센터가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에 각각 참여하는 형식으로 미디어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점 각각의 네트워크들이 분화되어 발전했다는 점. 이 정도를 주요 특징으로 말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그 두 번째 파트를 보겠다. 그런 식으로 시작되고 발전되었던 미디어운동이 현재 2012년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세 가지 정도로 제기해봤다.

첫 번째는 미디어센터에 대한 얘기다. 주류 미디어와 독립미디어 사이의 양쪽 진영의 미디어운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공간인 공공 영역이 설정되었고 공공영역은 그 당시에는 분명히 미디어센터를 상정하고 공공영역이라는 단어 개념이 제시되었고 현재도 공공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미디어센터라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미디어센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내용이다. 공공영역이 세 개의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주류미디어 내부에서의 운동이 있고 독립미디어 내부에서의 운동에서의 운동, 공공영역 내에서의 운동이다. 공공영역에서의 운동은 전 사회적인 공공적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독립미디어와 주류미디어 양쪽의 진보적 민주적 미디어운동역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독립미디어와 주류미디어 양쪽을 지원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 독립미디어에서의 운동과 주류미디어에서의 운동은 각각 하나의 운동 주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공공영역은 양쪽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역할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양쪽의 위아래에 있는 영역과는 약간의 위상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그런 사항 속에서 그런 주류 공공 독립이라는 프레임이 계속 이 당시로서는 충격적이고 신선한 시도였다. 이것이 10년 동안 이 프레임 속에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공공영역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미디어센터가 실질적으로도 확대되었고 30여개가 자리 잡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발전했다. 미디어센터의 확장 자체가 미디어운동의 발전 성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약간 의미에 불과한 문제라고 본다.

두 번째가 바로 미디어센터가 지나치게 비대화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주류미디어에서의 운동과 독립미디어운동에 비해서 초기에 원활하게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런 측면 속에서 공공영역에서의 운동은 계속 확대되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점점 정권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공공영역이 두 가지 역할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공공적서비스 확대였는데 이 측면에 어울린다. 원활한 공적자금의 유입을 위한 것이었기도 했을 것이고 그 당시 많은 미디어센터들이 커지게 되면서 여러 다른 생각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아마도 공공재 서비스로서 미디어센터들에 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디어센터들은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느낀 것은 독립미디어와 주류미디어 내부의 어떤 운동을 지원하는 역할로서의 미디어센터라기보다 공공적서비스 즉 미디어의 사회적불평등을 해소하는 점이 더 많았고 그런 측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대안미디어, 독립미디어의 확대가 사실상 미디어운동의 주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미디어센터 즉 공공영역이 미디어운동의 본질적인 목적 이런 것들에 가까이 다가가가고 있는 의문이 들었다.

세 번째는 김명준 소장님의 글에서 불안한 요소들을 제기했는데, 그 요소 4가지를 뽑아서 써봤다.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이다. 그것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미디어센터가 어쨌든 초창기의 이미 존재했던 불안요소들이 현재 많이 현실화 되었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해결해야할 상황이다.

21페이지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다. 미디어센터들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미디어엑트도 확대되었다. 미디어센터는 애초부터 타 영역의 미디어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이었다. 그 때문에 그 지원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미디어교육이었다. 왜 그런지 서술을 해봤는데 21페이지 마지막부터 나와 있는 것이 미디어교육의 대체적인 내용이다. 이것이 독립미디어 활성화를 지원해주는 미디어교육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확대되어가고 그를 통해 많은 수혜를 받았고 훌륭한 성과를 낳았지만 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 글은 약간 그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미디어교육에서도 세 가지의 비판점을 22페이지에 적어봤다. 첫째는 미디어교육의 위상에 대한 문제다. 마찬가지로 미디어센터와 흡사한 것인데, 미디어교육이 미디어운동을 지원해주는 역할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고 그런 식으로 발전해온 측면이 있지만 미디어교육이 확대되는 과정 자체가 미디어운동의 성장과 직결된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이걸 미디어센터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동일한 이유다. 둘째 역시 미디어교육의 지나친 확대와 지나친 비대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해봤다. 미디어교육의 확대가 바람직한 현상임에 분명하지만 이 미디어교육의 확대에 지나치게 많은 미디어운동의 역량이 올인되는, 특히나 미디어센터가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미디어센터가 가장 확실하게 수월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중 하나가 미디어교육이었던 게 분명하다. 이

러한 상황 속에서 미디어교육이 확대되었다. 아까 미디어센터와 동일한 이유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공공적서비스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그것은 미디어센터와 미디어교육이 같은 방향으로 갔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미디어교육, 미디어센터의 핵심이다.

세 번째는 시대적 흐름이 역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미디어교육을 애초부터 약간 모호했다. 그래서 장비대여를 한다던가. 미디어를 이해하고 주류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고 퍼블릭엑세스 등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다 보니까 미디어교육이 지금도 일반인들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되고 있지 않다. 약간 모호한 측면이 이미 존재한 상황 속에서 거기 미디어교육이 확실하게 대안미디어 독립미디어를 지원하는 측면을 벗어나서 공공재 서비스로서의 교육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모호함이 추가 결정적으로 최근에 미디어 융합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미디어와 결합되어 너무 자연스런 시대가 되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디어교육이 점점 더 다른 것들과 융합되면서 모호해지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이 미디어교육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면들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미디어교육에 이러한 측면에 대한 우려를 한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와 결합된 미디어 형태입니다. 그것이 모호해지면 본질과 목적마저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미디어교육의 고유의 특성이다. 분명 미디어교육을 시작할 때의 고유의 특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문화예술교육과 같이 미디어교육과 비슷한 것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본질적인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미디어교육의 본질적인 것은 지켜야할 것이다.

24페이지를 보자. 독립미디어의 활성화가 사실 잘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아까 처음에 주류, 공공, 독립 프레임이 한축이고 또 한축은 미디어운동이 여러 가지 네트워크로 분화되어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프레임이라면 그런 각각의 네트워크로 분화된 과정 속에서 원래 목적은 서로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나서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게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미디어센터와 미디어교육은 공공영역의 한축으로써 독립미디어와 주류미디어 내에서의 미디어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어야했는데 하지만 미디어교육 미디어센터 각각의 네트워크 내부에서 계속 발전해왔다. 독립미디어, 퍼블릭엑세스, 공동체라디오와 물론 서로 많이 도와줬지만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미디어운동 전체의 발전을 도모해오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끔 저는 미디어운동 진영 내부의 각각의 힘들이 분화되어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미디어라고 하는 미디어운동이 사실 저는 본질적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26페이지부터는 현재 미디어운동에 대한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생각을 말해봤고, 마지막 파트로서 새로운 프레임에 대한 상상을 해보는 탐색 정도로 했다. 공공영역의 의미와 역할을 잘 설정해봄이라고 되어있는데 어쨌든 이 공공영역이 확장됨으로써 아까 초반에 말한 것처럼 위치 자리매김 자체는 약간의 무리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초창기였기 때문에 미디어운동이 불모지 같은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프레임이 필요했다고 본다. 독립미디어는 워낙 약했기에 그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로써 공공영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초창기가 지나고 나서 독립미디어가 계속 활성화됐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그러한 과정이 10년을 거쳐 왔고 향후 더 발전적인 미디어를 위해서 상상을 적어봤다. 지금 공공영역 즉 현재 미디어센터는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공공영역이 원래 역할의 첫 번째가 공공 서비스, 두 번째는 미디어운동 지원이다. 공공재 서비스 역할은 일단 놔두고 독립미디어를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의 성장에 비하면 너무 늦다. 독립미디어를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으로 독립미디어지원센터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지금 현재 미디어센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생각해봤을 때 27페이지에 다섯가지 정도 정리해봤다. 현재 미디어센터의 문제를 지적했던 것은 가장 큰 것은 비대화였다. 미디어센터가 커졌다.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미디어센터가 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미디어센터가 워낙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 비대화라는 표현을 써봤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기능 속에서 좀 더 수월한 것 좀 더 편한 것을 보편적 서비스, 공공적 서비스측면으로 갔다. 그러다보니 독립미디어지원센터는 독립미디어에 초점을 맞춰서 독립미디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체계 여기에 채널을 확보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두 번째는 개별센터의 규모는 축소가 되는 것이지만 지역으로 소규모 지역단위까지 확산되어 양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것. 소규모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세 번째는 지역성을 좀 더 띄어서 지역의 독립미디어 주체가 좀 더 긴밀한 연대를 취하는 방식이다. 현재 미디어센터들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나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즉 공동체, 풀뿌리운동과의 연대를 좀 더 주요 역할로 하는 센터를 생각해라. 네 번째는 이 공적자금의 투여라는 초창기 공공영역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였는데 그것은 초창기, 과도기였기 때문에 더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어쨌든 미디어운동의 역량이 확대되었고 자생율도 생겼고 독립미디어센

터들이 많이 운영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적자금의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방식의 대안적 운영방식체계를 좀 더 찾아봐야한다. 28페이지 다섯 번째는 대중의 독립미디어, 팟캐스트, SNS를 지칭할 수 있는데 이런 폭발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미디어센터가 쫓아가기 힘들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대안적 채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포괄할 수 있는 형태의 독립미디어 지원센터로 특화되는 소규모 센터들이 지역에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미디어센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두 번째는 독립미디어에 대한 이야기이다. 독립미디어라고 했을 때 보통 콘텐츠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프레임 속에서 주류미디어 독립미디어가 동시에 언급되어있는데 주류미디어라고 얘기했을 때는 단순 콘텐츠뿐만 아니라 방송, 물적 근거와 콘텐츠, 채널 모두 포함해서 얘기한다. 독립미디어를 얘기할 때 역시 그것이 세 개가 같이 얘기가 되어야만 주류미디어와 대항하고 주류미디어에 긴장감을 주고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 첫 번째인 물적 근거는 미디어센터가 될 수 있고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콘텐츠와 채널이 확보되어있다. 콘텐츠의 경우는 기존에는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이 가장 주된 관심사였을 것이고 그것이 형식이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그래서 보통 당시 유행했던 VJ물 같은 다큐멘터리 형식이 많았는데 일반시민들이 제작하기가 많이 힘들었고 퀄리티가 보장되어야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 수급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29페이지에는 약간의 상상을 해보았다. 약간 이야기 식으로 써놨는데 동네 채널이라고 생각면 된다. 이것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동네에 그런 채널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시민이 제작한 것을 틀어주고 하지만 거기에는 스튜디오가 있고 상근 인력이 있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토론 프로그램도 한다. 편집을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지 동네사람이기에 볼 수밖에 없는 보고 싶은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런 동네만의 어떤 무슨 이슈가 있을 때 보게 된다. 이런 형태가 생존 가능성이 높고 제도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 측면이다. 특히 미국이나 독일의 몇몇 채널도 이런 식의 채널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성공적으로 된 사례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공동의 관심사가 폭발할 수 있는 사회적인제가 형성되었을 때 그냥 국내에서 소소한 것들이 반영되던 채널이지만 그런 것들이 어떠한 시기가 되었을 때 폭발적인 응집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0페이지 세 번째는 실용적인 프레임을 그려봤다. 공공영역이 하나의 역할이었던 독립미디어의 지원을 아예 빼서 독립미디어를 전부 지원하는 새로운 센터들이 많이

생겨나서 독립미디어 콘텐츠를 지원해주고, 콘텐츠는 독립미디어를 만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건데, 그 지원 미디어센터가 독립미디어를 지원하고 채널을 통해서 확산 되게 되고 그것이 이 주류 미디어에 긴장감이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류 미디어도 세 가지가 있다. 물질적 근거, 콘텐츠, 채널이 있으니 역시 독립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주류미디어와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식으로 생각해봤다. □

[녹취록2-토론]

2012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 저널 <ACT!> 포럼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프레임과 전략 수립을 위하여

○ 권용협 (평상필름 대표)

우선 미디어엑트 10주년 축하드립니다. 오늘 발제 내용을 올라오는 길에 봤는데요, 참고자료와 발제문의 완결구조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역시 대단한 분들이다. 발제문이 상당하죠? 좀 어렵고. 이 분들 원래 글 어렵게 쓰는 거 예전부터 알았는데 제대로 잘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결구조가 뛰어나다는 건 현실가능성이나 현실에 대입했을 때와는 별개인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면상의 완결성과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별개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면밀하게 검토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제 머리 속에 대입할 수 있는 틀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토론자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생각대로 말씀드리는 거, 맞죠?

이 완결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프레임 같습니다. 예전부터 주류-공공-독립, 이 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는 능력에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쭉 저도 몇 년간 지내보면서 이 프레임의 적합성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논의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에 굉장히 과격하게 공공영역을 프레임에서 뺏아버리는, 맞나요? 어쨌든 부산은 실제로, 저와는 똑같은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공영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별로 없었던 거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영역에 목적을 두고 있는 미디어센터와 조금 차이가 있는, 보편적 서비스에 목적을 두고 있는 센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공공영역이라고 해봐야 퍼블릭액세스 채널 정도인데, 주류 방송에서 활용하는 시간대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공공영역이 독립미디어영역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대로 설명을 하지만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주류영역하고 독

립영역만 어떤 상황에 있는 겁니다.

뭐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공영역이라고 인식을 하고 역량을 투여했던 미디어센터 독립영역의 역량을 뽑아내려는 시도도 있기는 했습니다. 지금 발제하신 분도 비슷한 수준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내부적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이 공공영역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역량 투여에 적합성을 결정하고, 역량을 더 투여하든, 빼든 지역별로 좀 공론화하자는 게 목적인거 같고, 부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좀 전에 그 요소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미리 뺐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걸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류-공공-독립이라는 이 프레임이 적합한가가 계속 의문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약간은 좀 자의적입니다. 한 줌 밖에 안 되는 독립미디어영역에 활동가들이 자의적으로 내리고 있는 판단 아닌가. 누가 여기에, 이 프레임에 동의를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이분들을 주류미디어영역으로 봐야 되는지 헷갈리는데 뭐 나꼼수, 뉴스타파 이런 건 주류 미디어 영역 전문가들이 나와서 활동하더라도. 그리고 주류미디어영역에서 활동을 뭐 라디오든 TV든 활동을 게스트로, 프리랜서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정치인들도 하고 있죠, 팟캐스트. 이런 것들은 주류미디어라고 봐야하는지 그렇다고 우리와도 같이 네트워크하고 있는 독립미디어영역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이런 분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팟캐스트 이전 시절, 인터넷방송이라고 해서 진행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촛불을 계기로 해서 방송국들도 많이 생겼고.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미디어운동의 전략과 프레임을 고민하는 이런 자리에 '아 나도 가야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분들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지 고민이 돼서 그리고 이분들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세 가지 영역과 프레임에 동의를 하는지도 고민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내용적인 면인데,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성을 강화하자, 지역에 안착하자, 지역의 미디어운동 역량에 집중하자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용한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방향설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설정을 방금 우리가 발제에서 들었던 이 프레임대로 하면 도대체 어떻게 이것과 맞춰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약간은 중앙에서 보는 프레임 설정, 지역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주류미디어영역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설정한 프레임에 동의할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공공미디어영역이라고 애초에 공적 지원을 지원하고, 의결하고 집행할 수 있었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 내지 행

정부처 쪽에서 시각, 결국 돈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영역을 우리가 가진 목적과 동일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 그렇다면 결국 독립미디어영역에 속한 사람들이 체제 부정적이거나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반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프레임으로 설정을 하고 그렇다고 누가 전략을 짜고 대본을 가지고 진행했다는 뜻은 아닌데 결과를 두고 보면 공공영역 자체가 원래 보편적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거를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흡수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즉 세 가지로 얘기한 영역과 별개로 프레임을 짜고 있던 분들과 우리가 짜고 있던 프레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 프레임대로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흐름에 편승, 아니면 동참한 결과, 그렇게 돼서 결국은 공공영역 자체가 필요하다, 혹은 불필요하다, 아니면 초반기에는 어땠다, 아니면 지금은 우리가 생각했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애초에, 프레임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던 사람들이 의결해서 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거기에서 준비된 역량을 투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초반에는 서로 맞는 줄 알고 만났다가 혹은 서로 흡수 내지는 설득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 봤다가 지금은 그대로 평행선을 그리고 와서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발제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예 보편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공간으로 가든지, 아니면 독립미디어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가든지 양자택일을 하자는 식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결국 지원, 의결, 집행할 수 있는 곳에서 보면 이걸 독립미디어에 지원, 센터 이쪽으로 지원하는 게 매력적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역이 아니었을까, 프레임의 적합성을 좀 더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부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같은데요. 일단은 대변형 콘텐츠를 제작을 하죠, 저널리즘이라고 부르니까, 그 대변형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그 콘텐츠가 독립미디어 영역한테서 주류미디어영역으로 존재를 하는데, 주류미디어가 주로 대변을 하지만, 우리는 퍼블릭액세스와 미디어교육을 통해서 직접형 미디어를 생산을 하도록 제작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주체가 되거나 그렇게 하거나 인재를 발굴되거나, 이런 재생산과정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아예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은 전략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전략수립이 부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백지 내지는 전략결정에서 키워드인데도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빠져있는 상황이구요, 독립채널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주류미디어를 감시하는 기능, 주류미디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의 연대, 독립미

디어의 생산 활동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결합하는 모델을 지역마다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델들이 가진 경험들이 공유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중요하게 판단 하나면 지역에서 미디어를 생산하는 구조를 보면 다 개인적 차원이거나 아니면 주류 미디어가 그게 뭐 서울에서는 다를 수 있는데 지역에서는 모호합니다. 지역에서는 V미디어운동을 같이 하기도 하고, 또는 주류미디어에 종속된 품을 팔기도 하고 그렇게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독립미디어운동영역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부산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것과 연결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것 인가와도 연결됩니다. 자력생활을 할지, 지원구조를 확대할지, 지원구조를 확대한다면 전제조건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는지, 발제문에서는 지원구조를 낮추고, 자력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류미디어의 콘텐츠, 전문적이라고 하잖아요, 주류 미디어 안에 독립미디어들이 생산하려고 하는 의제들을 어떻게 투여할 수 있을지는 연대를 통해서 실현 가능한 게 있지 않을까 제 판단에서 생각합니다. 전국차원이든 지역 차원이든 주류미디어와 독립미디어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논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서울은 지역정부가 수구기득권 사람들 손에 있다가 넘어왔죠? 축하드립니다. 부산은 10년간 넘어온 게 없죠? 다른 지역들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서울에서 미디어활동가들이 준비정도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객관적 조건이 유리해졌는데 그걸 독립미디어영역을 확대, 혹은 독립미디어네트워크의 확대, 혹은 독립미디어의 생산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프레임 미리 좀 짜놔야 된다, 박원순 시장이 되고 이후 진행상황을 보면서 부산에서는 서울보다 준비할 시간이 많겠다, 프레임을 짜는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방정부의 민주화를 어떻게 도모하고 지방정부가 민주화되었을 때, 민주화의 차이는 있겠지만 민주화된 정부 안에서 독립미디어의 역할과 역량을 어떻게 배치하고, 사업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공공영역 자체가 없는 곳이면, 독립미디어영역의 네트워크 구축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차별성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부산의 이야기고, 이 프레임 전체를 봤을 때도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점과 적용 안 되는 점, 적용했을 때 유리한 점과 이 프레임을 넘어서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자체가 이번 기회에 이게 10주년 기념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면, 정말 새로 20년을 바라보는 첫 계기라면 그런 것들이 논의되는 획기적인 정책 단위 혹은 정책 논의 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꾸려지는 것들로 가서 지역에서 올라오는 얘기들을 받아서 프레임

이 정교해지는 것을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행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미디어연구소 소장)

발제문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서 바로 읽고 바로 고민을 해서 바로 얘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 같아요. 약간의 변명을 앞에다 두고. 어쨌든 이런 고민들이 진행이 되고 정리가 돼서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수 있다는 자리가 굉장히 좋고요, 이걸 준비하고 추진을 한 액트편집위원회에게 감사? 치하를? 하여튼 참 훌륭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권용협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저는 저번에 세미나, 이전에 있었던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고 이번 포럼을 보면서 아 이렇게 뭐랄까 미디어운동 전반의 전략이나 전반의, 정말 넓은 장기적인 전략이나 전체 프레임에 대한 고민이 나 스스로도 많이 떨어졌구나, 감이 떨어졌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별로 토론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다보면 지역에서 전략을 짜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그것과 전체적인 프레임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별로 치열하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오늘 발제된 내용들이 지역에서, 각 지역의 상황이 다르지만, 각 지역의 상황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 게 현실인 거 같습니다. 사실 미디어운동의 전략을 지역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주류-공공-독립이라고 생각했을 때 독립미디어의 성장과 발전을 미디어운동의 발전으로 치환하고 있는 거 같고요, 주체가 주류미디어와 독립미디어영역에서 주류미디어야 뭐 약간 제쳐두더라도 독립미디어영역이 주체, 그리고 공공영역은 그 주체들을 지원하는 역할로 설정이 되어있는 거 같은데요, 옛날에 당시에 토론을 했었던 거 같은데 아 그런 얘기였구나, 새삼 생각이 들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10년 동안 미디어운동의 주체가 지원자였구나 각성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어쨌든 주체, 미디어운동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독립미디어영역의 주체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강화될 수 있을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발제문에서 독립미디어센터 지원센터? 이런 개념을 발표하기도 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폭 넓은 네트워킹이나 역량강화에 많은 역량이 투입이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많은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런 독립미디어영역이 생성이 되고 움직일 수 있는 과정에서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공공미디어영역이 지원이라면 지원이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보편적 서비스와 이 독립미디어 지원역할 두 가지를 놓고 보편적 서비스 영역들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어떤 미디어운동의 지원자로서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보편적인, 지금 현재 한국미디어센터들의 상황들로 봐서 틀린 지점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보편적인 서비스, 교육일 수도 있고 상영일 수도 있고 다양한 공공영역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이 그런 독립미디어활동가, 독립미디어영역의 형성과 발전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게 얘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 지역별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는지, 부산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영역에 대해 이미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서 손을 뗀, 측면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지역들에서는 그런 영역들을 좀 강화하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주체들, 새롭게 발굴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발전되나갈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는 방법도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디어센터와 미디어교육도 굉장히 수단적 의미로 인식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성과 발전의 경로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이 되면, 물론 독립미디어지원센터라는 개념 속에서 이뤄지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구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싶은 거는 어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공공적 서비스라는 부분들이 미디어운동과의 일정한, 공공적 서비스의 의미들, 공공적 서비스가 독립영역의 발전과 어떤 경로로 만나게 되는지, 만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연구가 되고 이런 경로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걸 전체적 미디어운동의 프레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가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과제가 아닐까, 왜냐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온 공공영역이고, 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렇게 어렵게 획득된 자원들, 구조들을 마냥 아니라고 선을 긋고 거기는 교육센터, 문화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독립미디어센터 따로 만들어서 하자라고 하는 건 낭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구축되어 있는 제도들이 어떻게 독립영역들과 더 만날 수 있는지 경로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역 수준이든 개별 활동가 수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제안된 얘기대로 하자면 기존

미디어센터들은 기존의 공공적 미디어센터를 강화해서 문화센터와 교육센터로 변화 해라, 익산센터가 그렇게 변화하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활동가들이 뭐 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디어센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역할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발제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동의를 하고요 발제를 아니라고 하기 보다는 조금 더 저희 지역, 혹은 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활동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민들을 말씀 드렸고요, 물론 프레임에 대한 논의고 개념적인 논의이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논의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미디어운동 활동가들, 미디어운동과 관련이 있는 다른 영역의 활동가들, 그리고 독립제작이나 배급역할만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같이 진행을 해야 하는 고민인거잖아요,

사실 일부 미디어센터든 대부분 미디어센터들이 많은, 오랜 기간 동안 평가가 되기를 이런 미디어운동영역에서의 역할, 독립미디어운동을 지원하고 주류미디어와의 일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면서 바꿔내는 역할이 주어졌었다면 지금은 보편적 서비스, 어떤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국한되고 있다는 지적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왔고, 정확한 현실인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포럼과 논의, 공론장을 만들었을 때 같이 가고자 하는 주체들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사실 액트편집위원회 내에서는 얘기를 했겠지만 전반적으로,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차원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이를테면 전미네 워크샵에서 어디까지 포괄할거나 생각할 수 있는 고민인데요. 지금은 좀 그런 구체적인 감을 가지고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바뀌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늘을 계기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가 잘 안 된 채로, 발제문이 늦게 와서라고 변명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사무국장)

실은 오전에 회의가 있어서 발제문이 분량이 많다는 것만 느끼고 발제하실 때 흐름을 따라가면서 봐서 조금 얘기를 몇 가지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은 맞는지 제가 집에 가서 다시 재점검을 해봐야 할 거 같기는 합니다. 일단 미디어엑트 올해 10주년인

데요. 제가 센터에서 활동한지가 5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반절정도 되었고요, 반절 정도 되었다고 말씀드린 건 10년에 대한 고민이 저는 반절 정도밖에 못 따라갈 거 같아요, 한 5년 정도 더 해야 이 고민을 심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미디어센터 상근활동가가 여섯 명인데 세 명 왔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왜냐면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저희가 연말과 연초에 그런 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앞으로 센터의 활동을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오래간만에 미디어센터의 목표가 뭐냐 거기에 맞춰서 전망을 얘기했었어요. 왜냐면 센터가 한 7년 정도 되었는데 활동가들이 거의 다 교체가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도 뭐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토론회 따라가면서 그래도 뭐가 있겠지, 기초적인 부분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고민 많은 이야기고 나름대로 개념 정리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미디어운동의 전략과 프레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같이 오자고 했고, 적절한 시점에서 얘기가 되는 거 같아서 저 나름대로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좋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 좀 했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류미디어, 공공영역, 독립미디어는 어쨌든 유효한 판단, 적절하고 조금 더 고민할 지점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 다른 토론자분도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프레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중앙과 지역이라는. 아까 발제문에서도 나왔지만 해외와 우리와의 차이점, 미디어운동 10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를 안고 있다. 이런 점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여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컸던 이유는 아마도 미디어운동의 출발점이 중앙집중적이지 않았나, 물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서울에, 중앙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기도 하지만 미디어운동의 출발 자체가 중앙집중적이었기 때문에 퍼블릭액세스도 그런 거 같아요. KBS도 퍼블릭액세스를 통해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지만 공동체미디어라디오가 서울보다는 지역에서 출발해서 올라왔다면 정치적인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굴곡을 겪었겠지만 탄탄한 기반을 갖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이 유럽이나 북미 지역과 우리나라 미디어운동의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미디어운동에 대한 프레임이 중앙과 지역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을 해야 할 거 같고요.

두 번째 주류-공공-독립미디어의 부분들이 저는 가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업적인 미디어, KBS, MBC가 주류고 미디어센터가 공공영역이고 공동체라디오가 독립미디어라면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지만 시대나 정치적인 상황에서 변할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가 있죠. KBS나 MBC파업하면서 나왔던, 그분들은 주류미디어에서 일하셨지만 지금은 독립미디어활동을 할 수 있고. 주류미디어에서 일하지만

독립미디어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공공영역이라는 미디어센터에서 활동을 하지만 또 다른 독립미디어를 만들 수 있고요. 공동체라디오가 독립미디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공동체라디오도 5년 정도, 10년 정도 지나면 또 다른 공공영역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라디오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또 다른 독립미디어가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 프레임 안에 각 영역들을 틀에 박혀서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사소한 얘기지만 용어가, 미디어센터나 미디어교육의 비대화라는 것들, 그 안에서 나타난 문제점, 한계들이 적절하다고 보지만 용어를 봤을 때 '비대화'라는 부분은 몸집이 커졌다, 양적으로 너무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 같아서 비대화라는 말보다 다른 쪽으로 규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인 부분들을 몇가지, 이런 상황을 지적하고 문제점의 해결점을 잘 설명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미디어운동에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운동을 처음 시작해서 한계를 갖다가 지금은 내려가는 시점, 이 부분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관들이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도약의 시기를 지금부터 점검하고 해야 할 거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시 미디어센터, 저희가 올해 저희 센터 내부 워크숍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면 미디어센터의 초심, 미디어센터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이런 초심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 부분에서 미디어센터의 전반적인 미디어운동의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는 구심점으로 조직화하는 필요가 되지 않을까. 여기 나와 있는 한계들이 미디어센터가 부딪히는 여러 문제점 중에 하나는 역시 전미네나 미디어엑트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전체 지역에서의 운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센터에서 하는 고민은 가끔, 미디어센터가 너무 많은 것을 갖고 가지 않느냐. 미디어센터에로의 중심화, 너무 많은 것을 갖고 가는 게 아닌가 고민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중앙과 달리 지역에서는 독립미디어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 약해요. 그런데 미디어센터가 다 갖고 가고 있고, 다른 분들도 미디어센터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솔직히 미디어센터가 다 갖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역의 독립미디어나 다른 지역의 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서 우스갯소리로 미디어센터가 한두 달 정도 문을 닫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미디어센터의 외곽과 소통을 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데 근데 현실적인 고민도 솔직히 있어요. 현실적으로 진주도 마찬가지로 한 달 한 달 월급이 빠듯한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미디어운동을 지원하고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리고 독립미디어, 저도 공동체라디오에 관심도 많고 센터에 들어왔을 때 공동체라디오를 세우겠다는 지상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공동체라디오를 세우는 게 정말 목표일까, 공동체라디오가 지역에 생겼다고 모든 게 해결될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독립미디어, 공동체라디오를 세우는 게 지금은 중요하지만, 이걸 세우는 게 마지막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어떻게 공동체라디오를 사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들고요, 이런 고민들을 저희 센터와 주민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독립미디어를 세우는 그 자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미디어운동 자체가 너무 형식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미디어센터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미디어센터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인 거 같아요. 미디어센터의 물적 토대를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할지 이끌어내야 할지 여전히 고민이에요. 지역에서 환경운동 같은 활동 하시는 분들은 미디어센터가 알아서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디어센터를 활용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 미디어센터가 알아서 와서 찍어주고 좀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들이 미디어센터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미디어센터를 매개로 해서 그런 환경운동에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다른 노동운동에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게끔 연결하는 부분들이 고민인데 이 부분 역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잘 되지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미디어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들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센터가 독립미디어를 지원하는 센터의 기능을 점점 더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맞기는 한데 그런 고민이 들어요. 미디어센터가 독립미디어, 여러 가지 공동체미디어나 스마트미디어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도 맞기는 한데 미디어센터가 독립미디어를 갖고 가는 건 어떨까. 저희 센터가 공동체라디오를 만드는 건 어떨까, 이런 미디어센터가 플랫폼이 되는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디어센터가 독립미디어의 지원센터가 아니라 미디어센터가 독립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은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 드는 고민이 뭐냐면 아까 미디어센터에 공적 지원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전주에 미디어센터 영시미가 있고 공동체라디오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두 개가 같이 공생할 것인가 아니면 두 개가 공멸할 것인가,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공멸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센터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공동체라디오까지. 둘 다 기관이 약하기 때문에 둘 다 공멸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드는 고민은 미디어센터가 어느 정도 공적 지원으로 안정화가 된 다음에 공동체라디오가 안정화

될 수 있게끔 미디어센터가 지원하는 구조가 강화되어야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 드는 생각은 현실에 대한 고민. 센터가 한 보름 정도 워크숍을 가지면서 미디어교육과 이런 것들을 미디어센터의 목표에 맞게 가자고 했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현실에 매몰 되어서 그런 것들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미디어운동의 관점에서 이끌어 낼 것인가 많은 생각이 듭니다.

○ 김명준 (미디어엑트 소장)

네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왔는데요. 뭐 새로 활동을 별로 안 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반갑고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아직 사망하지 않은 필자의 글을 인용도 하셨고. 우리 운동이 참 젊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뒤로 글을 많이 안 쓰길 잘했구나, 많이 썼으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여간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와서 얘기를 쪽 듣는데 확실히 좀 다른 거 같은데 몰랐던 얘기가 많아지는 게 반갑고요. 심하게 표현하자면 한 10년 전쯤에는 그런 얘기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최근에 2년 동안 교육활동과 재정활동만 해왔는데 그런 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토론자이긴 한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많이 할게요. 몇 가지 요약해봤는데, 일단 그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10년 전에 쓰였던 이 글이 어떤 점에서 쓰였는지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그때 저는 아 나는 원론적이면서 현실적인 글을 써야겠다. 되게 모순적인데, 원론적이면서 현실적인. 왜 원론적이냐면 여기 글에도 그런 표현이 잠깐 나오는데 10년 전에 우리가 게릴라운동을 한다던가, 폭압적인 시스템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이분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 대강. 그리고 경계라는 게 모호할 수 있고 어찌고저찌고 할 수 있는데 마침 한국사회가 2000년 전후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게 다가온 게 아닌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 100년 전부터 다 있었던 프레임인데 한국은 1대 1의 프레임이었다는 거죠. 주류 아니면 독립. 그래서 매우 원론적이거나 필요는 있겠다, 생각은 했어요. 물론 한계는 있었죠.

그리고 현실적인 건 뭐냐면 새로운 미디어센터를 시작하는데 의미를 짚을 필요가 있겠다. 이 글을 쓰고 나서도 계속 나왔던 논쟁들이 미디어센터는 지원하는 겁니까,

운동하는 곳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어느 지역에서 미디어센터를 시작하더니 저는 이제 공공서비스를 하고 운동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센터 내부에서도 우리 센터가 지나치게 지원 역할에 한정되면서 운동을 안 한다는 스태프들도 있었어요. 이런 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썼던 거고, 그 전에는 미디어센터를 하려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처음 시작한 게 우리가 되어버렸어요. 미디어운동의 큰 판에서 보면 가장 돈 없고 가난하고 근데 가장 급진적으로 보인 사람들이 시작을 하니 말이 되게 많았죠.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재네도 이제 나랏돈 받아서 타락한다. 급진적인 목소리를 높이더니 결국 저거 받으려고 그랬네.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현실에서 입증을 해서 끝내야 되는데. 일단은 물질적으로 의미를 미리 짚어주고 우리의 목표는 이런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런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2000년 이전에 미디어운동은 너무나 스케일이 작고 돈도 너무 없고 사람도 너무 없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시기에 혹시 재단 같은 게 큰 게 하나 생겼으면 아나 국가에 대한 개입, 물론 국가에 대한 개입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사회는 불가피하게 아무도 그런 돈을 대주려고 하지 않았고요. 이 얘기는 운동 내부까지 포함하는 얘깁니다. 민주노총, 아무리 기다려봐야 미디어센터 만들 생각 안하고 말로는 하겠다는 하고. 울산 가서 아무리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사람들과 만나서 토론을 해도 하겠다고 하고 안 하고. 지금도 20년 전쯤에 현대자동차노조와 현대중공업노조가 대단한 결단을 해서 미디어운동을 했더라면 노동운동의 판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이런 보편적 서비스를 운동에 안 들어갔다는 점에서 국가의 개입이 일정 정도 의미가 있었다는 정도를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맥락에서 역사적인 성격을 보면서 이해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걱정도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지역 주체의 취약성. 막상 이런 세 프레임을 얘기하긴 했는데 권용협 씨 얘기하신 것처럼 세 가지 영역들이 잘 큰 것도 아니고 분명히 여러 문제들이 있고 그런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전략을 무조건 차용하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피할 수는 없었던 거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이 돼서 10년이 흘렀는데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든 생각 중에 하나는 이 세 가지 프레임에 대해 지나치게 갇힐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걸 유연하게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다. 토론자들의 얘기는 그런 얘기가 참 많았던 거 같고요. 발제자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모델은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간 게 아닐까, 너무 공공영역을 제한적으로 놓고 독립미디어영역을 떼어서 너무 이렇게

한 건 아닐까, 지역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아까 부산에서 표현했을 때 제가 좋았던 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보면 안 그럴 거 같았는데 주류미디어와 연계 속에서 활동하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기도 하고. 이진행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초점들은 그런 거 같아요. 공공영역을 어려운 말로 하면 재조명한다고 쓰잖아요. 공공영역을 운동 잘하는 곳으로 바꾼다,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거꾸로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붙여서 재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보면서 가면 될 거 같고, 세 가지의 프레임 자체를 지나치게 너무 다른 방식으로 부담을 느끼면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 개념들은 좀 교통정리가 필요한 거 같아요.

여기서 보면 공공적인 서비스를 조금 좁게 해석하는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센터가 너무 조심스럽게 낮은 수준의 보편적 서비스에 집중하는 경향을 표현하려고 공공서비스 중심을 쓴 거 같은데 우리가 사실 하려는 건 공공서비스라는 큰 개념을 가지고 싸운 거잖아요. 센터가 예를 들어서 아니 한진중공업에서 싸우고 있으면 센터가 지원을 해주는 게 공공서비스인가고 싸우는 게 맞는 거잖아요. 반대를 고려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개념으로 가져오는 게 중요하지, 그것들을 자꾸 떨어뜨려서는 오히려 퇴행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 것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공공영역 자체의 개념이 모호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돈 문제가 있잖아요, 공공자원이 투입된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미디어엑트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공공자원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제가 빚겨가지고 하는 미디어센터. 독립미디어센터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직접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미디어와는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정치적 의미로서의 공공영역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우리가 써왔던 개념을 다 섞어서 쓰고 있었는데 교통정리는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있고요. 당연히 운동 내부의 역할들을 조정을 하고 어디를 강화할 지에 대한 얘기로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로 진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리가 미디어센터가 관성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운동에서 세상을 보는 데, 세상이 자기 운동에 안가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기 운동이 안 되더라도 세상은 좋아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사고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그런 점에서 몇 가지를 말씀 드리자면 이 부분들에 대한 해명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 같은데 하나는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 같은 네트워크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한편으로는 옛날부터 사실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슈가 될까 가만 생각을 해보면 관심이 크다고 생각해요. 예전엔 그 영역이 어떤 운동에서도 개념화시켜주지도 않고, 이름을 붙여주지도 않고, 공공적인 제도에서 저걸 지원하는 대상으로 설정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되짚어보는 맥락이 한편으로는 현장을 중심으로 출발한 영역을 되짚어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굉장히 특수한 우리의 현상이 주류 쪽에서 이탈하거나 혹은 주류 언저리에 있었던 콘텐츠들이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는 시대. 예를 들어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다보면 대안미디어하면 뭐가 떠오르냐 했을 때 나꼼수 얘기, 리셋KBS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거고, 이것과 아주 반대쪽에 있는 거 같은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 그리고 여기 계신 미디어센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주류 쪽에서 잠깐 일을 하면 주류 쪽 같은 경우도 노조활동 하면서 이렇게 밖에서 하는 활동이 처음인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어떤 노조보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안 했던 거고. 그러다가 갑자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시작했는데 문제는 파업은 끝날 거고 다시 돌아가겠죠? 그럼 지금 하던 건 어떻게 할까요. 그 성과들은 어떻게 할 거고. 지금 하던 건 못할 텐데. 근데 지금 하고 있었던 것들을 원래 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하던 건 아니었고. 몇몇 사람들은 그것의 성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을 거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몇 년을 해도 잘 안 되었는데 저것들은 아무것도 안하다가 툭 튀어나와서 한두 개 만들더니 뜨고 이런단 말이죠. 가슴이 아프긴 한데 자기 중심으로 보지 말고 전체 운동에서 보면서 이런 흐름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구조화시켜서 하나의 운동으로 발전시킬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논의가 우리가 10년 전에 시작할 때와 차이가 뭐 SNS 이런 게 커지면서 '공동체'라는 표현이 10년 전에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대안적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머독이 우리의 미래는 공동체미디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본 측에서 거꾸로. 페이스북이 상장을 앞두고 있고. 이렇게 SNS가 확장되면서 새로운 미디어가 확장이 되고 이제는 운동이라고 하면 조직들이 얘기가 되었는데 이제는 운동이라고 하면 조직들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흐름들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변수가 우리에게 프레임으로 잘 포착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얘기하는 세 분류도 이런 것들을 자꾸 이런 것들만 고집한다고 보고 아까 권용협 씨가 대변형이라고 해서 굳이 그 표현을 썼을까, 좋은 표현은 아닌데, 대의제 이런 표현 썼잖아요, 아까. 어쨌든 그런 것들과 기존 조직운동과 네트워크 운동들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면서 새로운 운동으로 발전할지 하루빨리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서 필요한 고민들이 이런 거예요. SNS를 보면서도 느낌이 SNS가 발전하면서 가장 변화한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투표를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미디어운동차원에서 해석이 없는 거 같아요. 사실 전지구적 차원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른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오랜 기간 진행되어온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물론 그곳에서도 투표를 하자는 말들이 있지만 우리처럼 모든 것을 투표로 집중되는 것으로 표현되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치운동, 일반적 대중적 수준에서도 투표 말고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대안적 정치를 얘기할 주체들은 한쪽에서는 아주 오래된 굉장히 추상적인 맑스주의에 빠져서 동어반복을 하던지, 극소수가. 아니면 저렇게 의회를 들어가서 난리법석을 피우던지. 이런 정치지형 속에서 대중들이 눌러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편으로는 정치적 지체가 돼서 어렵긴 하지만 특히 지역 속에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새로운 운동을 해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건 아닐까. 근데 그런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고. 근데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 세 개의 프레임을 지나치게 얘기를 하는 건 조금 늦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또 하나는 재원의 문제. 재원 문제에 대한 전략을 개별적으로 말하지 말고, 정권 바뀌면 풀린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물론 정권 바뀐다면 좀 되겠지만, 서울시의 변화와 서울시 미디어운동을 봐도 늦잖아요, 사실. 그런 정치적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참여를 통한 후원도 있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하는 운동들이 정확히 뭐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내 운동에 대해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프레임을 조금이라도 진전시킬 수 있다면 그것 역시 돈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고리가 될 거 같고 재원전략은 동시에 별도로 정리해야 하는 얘기가 아닐까합니다. □

[녹취3-플로어토론]

○ 이주영(RTV 기획실장)

2009년에 보직 해임되고 나서 평사원인데. 아까 그 최성은 국장님이 5년 해서 절 반밖에 못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저는 10년을 했는데 3분의 1도 못 따라가겠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사실 토론회나 이런 최근에 큰 이슈나 이런 뭐 아니면 원론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지 너무 오래 되서 그런지 따라잡기 급급하긴 한데. 일단 전체적인 거 보다는 제가 RTV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자기 운동 안에서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시각 안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쓰신 내용 중에 공공영역을 다 들어내시고 여기에 독립미디어채널이라고 크게 주요한 구성을 하나 만들어놓으셨는데요. 상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앞에 미국에서 경험했다는 그 즐거운 상상을 많이 써놓으신 거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상상을 저희가 처음 퍼블릭액세스라는 것을 접하고 또 미디어센터에서 제작교육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런 거였죠. 소규모 지역에서 채널들을 만들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고. 근데 그 퍼블릭액세스운동을 10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것들은 제도를 만들고 지원금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건 아니지만 RTV라는 위성방송채널을 따내고 이런 식의 커다란 것들을 10년 동안 만들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말 퍼블릭액세스운동을 해온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가 듭니다. 실제로 지원이 끊기고 나니까 남은 게 없는 거 같고. RTV 같은 경우도 막상 문은 열고 있지만 지금 하는 건 그냥 간단한 일주일에 한 프로 정도 지원받아서 프로그램 나가는 거 이외에는 계속 프로그램 재방이 나가고. 액세스 채널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액세스 채널로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저는 RTV 뿐만 아니라 이런 커뮤니티TV라던가 아님 독립미디어채널이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 많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미디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퍼블릭액세스 안에서도 그때그때 닥치는 일들 이외에 커다란 그림을 그리기에는 너무 닥친 인들도 많고 답답하기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프레임 안에 독립채널이나 커뮤니티TV 같은 그림들이 들어가고 같이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 박정호(진주시민미디어센터)

오늘 10주년 축하드리고요. 저희도 10주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발제를 못 들어서 미안하고요. 꼭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시면 협동조합이나 공동체, 소형미디어센터 이런 제안에 대해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협동조합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미디어센터가 협동조합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들었고, 어떻게 사람들과 공동체에서 어울릴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알고 싶고. 그래서 답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 박민욱(ACT! 편집위원회)

발제문 늦게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길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들도 있었고 그것들을 개념화하고 구조화하면서 김명준 소장님의 글이 계속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쓴 글이기도 하지만 세미나의 결과물이기도 해서 그걸 믹스를 해서 썼고요. 공공영역을 들어낸 건 아니고요. 핵심은 공공영역의 위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논리적이라기 보다는 감정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제가 미디어운동 진영에서 관심을 가진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약간 감동적인 것들을 봤고, 2년 전에.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직장상사를 만나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자세히 바라보게 되면서 아까 문제점들을 제가 눈에 띄게 본거죠.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 드린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문제점들은 미디어센터. 논란은 초창기에 있었던 논란들이 아직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10주년이기도 하니 10년 전 글을 토대로 해서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던 거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미디어센터와 결합되어 있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얘기들이었고요. 최근 관련 연구에 참여하게 돼서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미디어운동의 목적에 이것이 많이 와 닿아 있는가 의문이 계속 있어서 이런 것들이 글에 녹아있었

고, 마지막으로 핵심은 채널이었고요. 채널만 있으면 미디어교육이 교육 자체만을 추구하는 저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채널이 있었다면 그 결과물이 퍼블릭액세스 될 수 있었을 거고, 뺨 뚫릴 수 있을 거라고, 채널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겠지만. 네트워크에서의 대승적 합의라고 썼는데 채널이 되었던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써본 거구요. 이름이 뭐가 되었던 공공영역을 없애려고 했던 건 아니고, 공공영역의 자리매김을 했던 거고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협동조합 얘기는 권용협 선생님이 좀 해주시죠.

○ 권용협(평상필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협동조합 얘기는 아닌데. 다 동의하실 거 같아요. 프레임에 대한 논의가 맞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또 발제자 분께서도 낙관적으로 보자. 실제로 우리가 했던 경험들이 현실에 적용가능한가, 빛을 발하는 그 국면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독립미디어운동 판이 쪼그라들면, 10년 동안, 저는 정책적으로는 높아졌다는 데 동의하지만 생산력은 쪼그라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도 콘텐츠 생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콘텐츠 생산을 자기 정체성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정책제안을 하자는 말이 아니고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부족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공공영역으로 역량투여를 많이 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생산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영향이 있는 콘텐츠인가 혹은 영향력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나 이 두 가지가 향후 전략수립 하는데 중요한 모티브로 설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고, 그런 과정에 이런 실험 저런 실험을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공장을 가든 아니면 여기서 콘텐츠를 팔아먹고 살던지. 근데 콘텐츠를 팔아먹고 살면 독립미디어영역 안에 활동이 줄어듭니다. 떠나는 거죠. 독립미디어운동 판 안에서 이탈하게 되는. 그럼 남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공영역에서 일할 준비가 되어있는, 혹은 유경험자가 남는 거죠. 행정파트에 대한, 혹은 조직력에 대한, 혹은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근데 심지어 공적 지원 자체도 끊어져버리면 더 암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자원전략 얘기 하셨는데 복지나 이런 구조도 고민해야 하지만 전문적 콘텐츠를 생산하는, 국내든 국외든. 그리고 전문적 콘텐츠 자체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심지어 수입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까지 가능할 수 있어야 하고 박민욱 선생님께서는 그것이 독립채널을 통해 활성화가 될 거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콘텐츠가 왕성해지면 오히려 독립채널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RTV에서도 동의를 하실 거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 독립미디어영역 안에 생산자라는 정체성, 지원자라는 정체성 말고, 생산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흡수가 되고 그래서 활동을 왕성하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 프레임 논의와 별개인 거 같아서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 이진행(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미디어연구소 소장)

마지막으로 발제자 분이 하셨던 말씀을 듣고 충격 받았었던 이 감동과 이 내용이 뭔지가 조금 상상이 되긴 하는데요. 그런 거 같아요. 몇 년 동안 계속 고민을 빠뜨렸던 주제들인데 오늘 또 많은 얘기 나왔던 미디어센터의 역할이나 의미 이런 것들. 그것이 10년 전에 봤던 프레임 속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좋은 경험이었구요, 근데 마지막에도 말씀 드렸지만 어떤 부분은 정리는 언제나 필요하고, 그게 소홀했을 때 전체운동이나 자기 정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정리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효과나 목표에 대해서도 대승적으로. 아까 제가 빠뜨렸던 얘기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 지역에 밀착해서 공동체와 활동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센터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고 긴밀하게 논의를 하는 어떤 미디어운동의 공동주체라고 할 수 있는 센터들을 보면 사실 지역과의 밀착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당연히 지역에서 활동하면 그런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기대하시는 밀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고, 결과물이 어떤 게 나와야 이게 밀착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과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다. 그리고 반드시 소규모 센터, 중소형 센터로 갔을 때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진 않고요. 서울에 있는 미디어엑트도 지역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고, 모르겠어요, 부산, 광주와 같은 진짜 큰 센터들은 확실하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채널에 대한 고민들이 당연히 중요한 고민이고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것이긴 한데 채널의 존재도 발제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할 수 있다.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 같아요. 저는 대부분은 교육 결과물들이 어떤 식으로든 액세스가 되고 있고 현재도. 지금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실제로 되고 있고. 완전히 기술교육, 프리미어라던가 촬영교육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교육들이 장기적인 미디어교육의 프레임 속에서 이뤄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지역에서 보여지고 있고 소통의 기회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와 앞으로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 최성은(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사무국장)

소장님 얘기하면서 들었던 생각도 그렇고 권용협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스마트 미디어 관련된 토론회에서 고민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미디어 생산, 미디어 콘텐츠 생산에 대해서 최근에 공동체라디오라든지 미디어 관련 되서 일상성과 진보성이, 흔히 얘기하는 독립미디어는 급진적이고 진보된 콘텐츠를 얘기하는 걸로 얘기되는데 최근 공동체라디오나 스마트미디어가 얘기되면서 어떤 부분들은 일상, 우리의 일상의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거 같아요. 미디어센터에 오신 분들이랑 회원교육하면 어떤 사회변혁이나 사회 바꾸는 콘텐츠보다는 자기 주변 일상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욕구가 많은데 이런 일상적인 콘텐츠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필요할 때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주체로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이 들고요. 여전히 퍼블릭액세스 하다보면 이슈화되는 얘기가 안 나올까 얘기가 나오는데, 일상적 매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저변이 확대되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진보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주체로 만들 수 있나 고민이 들고요.

제가 2년 전에 토론회에서 저도 자료만 받아놓고 깊게 고민을 못했는데 미디어센터든 공동체미디어든 독립미디어든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지속가능한 요인 중에서 사회적인, 제도적인 요인도 있는데 경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 공동체미디어 비즈니스 모델. 파격적인 건데. 그런 경제적인 요인들이 미디어 운동이나 공동체미디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상업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센터가 한 10년 정도 되었고, 앞으로 20년, 30년 가려고 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용어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명준(미디어엑트 소장)

빨리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들만 제안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는 협동조합 나오셨는데, 우리가 미디어센터 시작할 때 공적 모델 중심이었잖아요 위탁. 그것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많았고, 그거 덕택에 얻은 것도 많지만. 어쨌든 이거는 미디어센터 차원에서 본격 논의가 되어야 될 주제인 거 같아요. 협동조합 모델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저희는 사단법인이었잖아요 근데 비영리법인이라도 겹쳐있고. 각 나라마다 상황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운영모델과 재원이 연결 되어서 다시 연결되는 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그건 허경씨가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비슷한 식으로 토론되면 좋겠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현장 쪽은 그렇게 논의를 하고 계신데, 주류에서 튀어나온 대안미디어에 대한 평가와 종합적 전략 검토, 프레임에 대한 논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주류 내부에서 돼서는 굉장히 한계가 많고 상상력도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우리와 연관 속에서 해명될 게 있는데 이거를 맡겨두지 말고 이쪽 운동진영에서 선도적으로 장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 봐요. 아까 허경 씨가 예를 들었던 미디어교육에서 주체들이 하듯이 그런 얘기들을 포함해서 하면 좋을 거 같은데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마을미디어 얘기 막 하는데 도대체 동네나 마을 이런 차원에서 플랫폼 활동 문제를 최소한 시청각 매체 차원에서라도,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왔다 갔다하는데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거에 대한 게 조금 어느 시점에선가는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게 또 지역미디어센터들의 경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쯤은 서울시가 그런 변화가 생긴 김에 지역에서 거꾸로 서울시에서 이런 거까지 해봐라.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전국에서 서울로 논의를 갖고 들어오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고.

세 번째 얘기는 전문적인 콘텐츠 논의는 사실 프레임에 없다가보다는 프레임에

잘 보이지 않는 독립영화가 사실 중심이죠. 최근에 뭐 하나 만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이건 농담이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결국은 전문적인 대안미디어의 활성화, 주류에서 이탈한 사람들만이 아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전통이 매우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고, 주체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얘기가 많아지는데 이걸 어쩔 거냐. 그래서 아까 마을미디어 얘기가 나왔을 때 핵심이 공동체라디오 연관도 있고 쥘여 있는데 지금 주파수 재배치와도 연관 있는 문제라서 이쪽에서 담론을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보면 최시중 딱 잡혀가자마자 나왔던 성명서 하나가 최시중이 잡혀갔으니 그동안 방통위에서 통신 중심으로 얘기했던 주파수 재검토 문제를 재검토하자는 방송협회 쪽에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아무 입장도 안 나왔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이 통신중심으로 되었다, 두 번째, 기득권 방송 쪽 외에서는 얘기가 없다. 그래서 대안적, 전문적 콘텐츠에 대한 큰 채널 얘기와 공동체미디어를 포함하는 작은 채널에 대해서 주파수 배치가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 주제는 다르긴 하지만 상황상 빨리 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서너 가지가 이후에 여기 계신 힘 있는 분들이 자리를 마련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

[별첨] 2012 미디어운동 세미나 기획안

2012 미디어운동 세미나

“미디어운동, 어디까지 왔나? : 과거와 현재가 만나 미래를 꿈꾸기”

미디어운동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의 설레임을 기억하시나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들이 가능할 것 같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퍼블릭 액세스를, 미디어센터를, 미디어교육을, 미디어네트워크를 제안하던 그 순간이 바로 그 때인 것 같습니다. 그 후 10년.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 설레임을 간직하고 있나요? 상상하던 그 순간의 어디쯤 와 있나요?

2012년 미디어운동 세미나는 이와 같은 물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미디어운동 세미나는 지난 시간에 대한 학습과 성찰을 넘어 현재에서 과거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바탕으로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꿈꾸는 시간으로 채워가고자 합니다.

생각보다 소박하고 생각보다 소소하게 채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작이 함께 미디어운동의 그 무엇을 꿈꾸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연대를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이나마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함께 할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편집위원회 드림

- **일시** 2012년 02월 15일(수)~04월 11일(수) 매주 수 15:00~18:00 | 3시간*7회
- **장소** 미디어엑트 회의실 외
- **주최** ACT!편집위원회
- **정원** 10명

[제안문]

2012 미디어 운동 세미나를 제안하며

박민욱 (ACT! 편집위원)

벌써 2012년이다. 미디어액트가 개관한 것이 2002년이니, 미디어 운동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환희의 순간, 좌절의 순간이 다 함께 있었다. 아니, 있었다고 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뒤늦게 미디어 운동에 합류를 한 탓에 그 질곡(!)의 세월을 함께 하지는 못했으니, 감히 지난 10년에 대한 감상을 운운할 처지는 못 된다. 다만, 앞으로 미디어 운동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함께 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에, 앞으로의 새로운 미디어 운동 10년을, 더 나아가 우리의 최종목표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그 이후까지를, 같이 만들어 나가기 위한 건설적 제안 정도는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 세미나 제안문은 그러한 나의 작은 의지의 소산이며, 또한 지난 10년 간 불모의 땅을 일구어온 우리 선배들과 이제 시작하는 나와 같은 처지의, 혹은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할, 신진 활동가들 간의 가교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에 나는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의 이름으로, 기존 활동가와 신진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2012 미디어 운동 세미나와 포럼을 제안하는 바이며, 본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미디어 운동 10년을 맞이하여 미디어 운동의 목적에 대해 재고찰을 해보려 한다. 미디어 운동이 태동되었던 초기와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여러 측면에서 상황이 바뀌었고, 운동의 방법론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그것은 당연한 과정이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상정하였던 미디어 운동의 본질 및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목표의 근간은 변하지 말아야만 할 것이며, 빠른 변화의 속도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되새김질 해야만 하는 것일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대내외적으로 워낙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생존을 최우선시 하다가, 혹은 기존의 방법론에 관성적이 되어 가다가, 운동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이에 새로운 미디어 운동 10년에 대한 건설적 제안을 함에 있어서, 그 토대로서 미디어 운동의 목적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해보

고 현재의 방법론이 이에 적절한지 검토해볼 시기라고 생각된다.

둘째로, 지난 10년간 미디어 운동 네트워킹이 분화되어온 방식의 이유와 당시의 조건들에 대한 포괄적 재검토를 해보려 한다. 미디어 운동 진영은 본래 (“첫째”에서 살펴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법적으로는 퍼블릭 액세스, 공동체 라디오, 미디어 교육, 미디어 센터, 공동체 상영, 대안 언론 등 상당히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로 각각 분화되어 발전해 왔으며, 초창기에 이렇게 세팅되었던 데에는 타당한 이유와 그럴만한 당시의 조건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각 네트워크는 대부분 그 활동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이고, 더 심각하게는 각 네트워크 사이에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이 되지 않아 활동의 성과가 각 네트워크 내부에만 축적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세미나에서는 초창기 네트워크 분화 방식의 이유와 당시의 조건들을 다시 검토해보고 현재에도 그 이유가 타당한지, 또한 그 조건들이 여전히 유효한지 살펴보려 한다.

셋째로는, (“둘째”에서 살펴볼) 현재 미디어 운동 네트워킹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첫째”에서 살펴볼) 미디어 운동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네트워크를 재편 혹은 수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보고자 한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괄목할만한 성취를 부정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그 성과를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확대하여 새로운 미디어 운동 10년의 프레임을 구상해보자는 취지이다. 특히, 올해 2012년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국면 전환이 예상되는 시기이고, 서울시에서는 이미 새로 선출된 시장에 의해 풀뿌리 미디어 운동과 관련한 긍정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기존 활동가들과 신진 활동가들이 함께 기존 프레임에 대해 검토해보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건설적 제안을 고민해보는 것은 시기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나는 이상의 세 가지 목표를 지향하는 미디어 운동 세미나를 2012년 2월부터 3월까지 매주 개최할 것과 세미나의 성과를 축적하고 외화하기 위한 포럼을 4월 중에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세미나와 포럼의 결과물은 주최 측인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차기 호에 특집기사의 형태로 정리되어 게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는 2010년 이래 격월발행으로 전환되면서 다소 주춤하고 있는 <ACT!>의 위상 제고와 내부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본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미디어 운동 10년의 프레임 도출을 위한 첫 단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단계를 만들어 나갈 사람들의 고민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세부 프로그램

회차	일시 장소	내용	이야기 손님
1	02/15(수) 오후 2시 미디어엑트 회의실	<p>○ 미디어운동의 목적과 실천 전략은 무엇인가? 미디어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 된지도 10년이 지났다. 초기에 설정되었던 운동의 목적과 실천 전략을 다시 확인해보고 그것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현재 변화된 상황 속에서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완, 실천할 수 있을지 고찰해본다.</p> <p>○ 함께 읽을거리 = (영상) 미디어 운동의 전략 가다듬기 Ver. 0.9 : 주류 미디어, 공공 영역, 대안(독립)미디어의 상호 역학 / 김명준 / 2003 /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1호 = 미디어융합시대, 미디어정책의 최고 의제와 지향 / 김지현 / 2007 / 「미디어융합시대, 어떤 미래를 그릴 것인가」, 미디어엑트</p>	김명준 김지현
2	02/22(수) 오후 3시 미디어엑트 회의실	<p>○ 미디어운동 네트워킹의 현재 분화 방식은 적절한가? : 미디어운동 네트워킹은 어떻게 성립되었고 어떻게 분화되어 왔는가? 현 네트워킹 시스템의 문제점 혹은 발전 방향은?</p> <p>미디어운동 진영 안에 있는 각 네트워크가 현재의 방식으로 분화되어 온 이유와 당시의 조건들에 대해 재검토해보고 이것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확인해본다. 또한 각 네트워크 사이에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이 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이에 따라 네트워크 활동의 성과가 각 네트워크 내부에만 축적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본다.</p> <p>○ 함께 읽을거리 = 우후죽순, 지역 미디어 활동가와 만나다? - 전국 미디어</p>	나 비 석보경 오재환 허 경

		<p>운동 네트워크로 가기 위한 과제 / 조동원 / 2004 /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저널 <ACT!> 15호</p> <p>= 공동체상영운동네트워크의 2006년 활동 보고 및 향후 계획, 2006 전국미디어교육네트워크 활동 보고, 2006 라디오운동 현황과 쟁점 / 김화범, 오정훈, 하주영 / 2006 / 제10회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워크숍 자료집</p> <p>= 대안미디어운동의 확산, 심화, 변화의 전미네 5년 Living Network! Re-Networking! / 허경 / 2010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5주년 연속토론회 자료집</p>	
3	02/29(수) 오후 3시	<p>○ 미디어센터의 탄생 배경과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해외 사례와 차이점은? 미디어센터 네트워킹의 현황은 어떠한가? 문제점 혹은 발전 방향은?</p> <p>미디어센터는 한국 미디어운동의 사실상 출발점이며 현재에도 그 중심축에 놓여있다. 하지만, 플랫폼과 유리되어 있는 한국형 미디어센터는 태생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문제점들이 점차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디어센터 네트워킹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보고 전체 미디어운동에서 미디어센터의 적절한 위상 및 향후 미디어센터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본다. 또한 서울시에서 제시한 마을 미디어센터에 대한 전략도 고민해본다.</p> <p>○ 함께 읽을거리</p> <p>= 지역미디어센터 설립 운동의 현황 분석과 조직적 실천 전략 탐색 / 조동원 / 2002 / 제2회 지역미디어센터네트워크 워크숍 발제문</p> <p>= 지역미디어센터의 현황과 과제 / 허경 / 2010 /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개관 5주년 토론회 발제문</p> <p>= 해외 지역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진흥 관련 입법 사례 / 박민욱 / 2011 / 제3회 CAMF 포럼 발제문, 주안영상미디어센터</p>	이진행 박민욱
4	03/07(수) 오후 3시	<p>○ 미디어 교육의 목적과 그 실천 전략은 무엇인가? 미디어 교육 네트워킹의 현황은 어떠한가? 문제점 혹은 발전 방향은?</p> <p>지난 10년간 미디어교육은 양적, 질적으로 상당한 발전과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에 미디어교육의 성과가 미디어운동 전체에 원동력으로 작동하기 위해 타 네트워크와 어떻게 원활</p>	미정

		<p>한 소통 및 협력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해본다. 또한, 미디어교사 양성방안 연구팀으로부터 미디어교육 네트워크의 지역별 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듣고 질문해본다.</p> <p>○ 함께 읽을거리 = 미디어교육 현실 진단과 목적 설정, 미디어교육의 방향과 과제 / 오정훈, 박혜미, 홍교훈 / 2007 / 「미디어교육 새로운 실천 2 : 개념, 틀, 방향」, 미디어엑트 = 전국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현황 / 미디어교육 교사 양성 방안 연구팀 / 2012 / (진행 중)</p>	
5	03/14(수) 오후 3시	<p>○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우리의 채널은? 미디어센터와 미디어교육의 꾸준한 양적, 질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안 미디어는 한국에서 유독 취약한 지점이다. 이렇게 된 원인과 전략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퍼블릭 액세스, 공동체 라디오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대안 미디어 활성화 전략을 고민해본다. 또한, '나는 꿈수다' 등으로 촉발된 대중적 대안 미디어 현상을 미디어운동에서 어떻게 흡수할 수 있을지 전략을 논의해 본다.</p> <p>○ 함께 읽을거리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 이진행 / 2010 / 시청자권익증진포럼 발제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공동체방송(Community Broadcasting)의 제도화 및 활성화 방안 / 최성은 / 2012 /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정책보고서 2 공공미디어와 미디어 균형 발전」,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p>	박채은 석보경
6	3/28(수) 오후 3시	<p>○ 지역을 중심으로 미디어운동 네트워크 전략 고민하기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가 3월 중에 개최할 두 차례의 워크숍 이후, 미디어운동 네트워크의 방향성 및 실천 전략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해본다.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미디어운동 네트워크를 재편하는 것이 가능할지 토의해본다.</p>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외
7	4/11(수) 오후 3시	<p>○ 새로운 미디어운동 10년의 프레임 도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가능한 수준에서 향후 10년간 미디어운동의 방향성과 실천전략을 논의해본다.</p>	종합토론
포럼	5월 중	○ 포럼 개최	종합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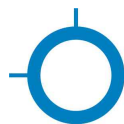
[MEMO]

[MEMO]

[MEMO]

2012 진보적 미디어운동 연구 저널 <ACT!> 포럼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프레임과 전략 수립을 위하여”

펴낸 이: ACT! 편집위원회
펴낸 일: 2012년 5월 11일



미 디 액 트

MEDIACT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액트 www.mediact.org

121-835 서울 마포구 상암동 우리기술빌딩 13층

Tel. 02-6323-6300 Fax. 02-6323-6315 Twitter. MediAct_center